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나 하고 (누가복음 24장 32절)



금주의 기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재성명인 땅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순종하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시고 특히 뉴욕과 전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9.11사태 10주기를 맞아 무슬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생명의 강한 마음으로 그들 스스로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351호 2011년 9월 17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무슬림들의 예수그리스도 따르는 열기 기대!

CT, 풀러신학교 우드베리 교수의 9.11사태 후 달라진 무슬림 선교현장 소개

선교학자들은 현대 무슬림 선교는 카이로에서 1906년에 무슬림 세계 선교대회를 열면서 시작됐다고 본다. 그 이후, 약 100년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무슬림 선교는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되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과거에 무슬림들 안에서 자행됐던 서구의 십자군 원정과 제국주의로 그들을 무참하게 죽이기도 했고 정치적으로 억압했던 역사이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무슬림 나라들이 서구 열방에서 독립하면서 무슬림 선교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소위 "식민지 선교" 양상으로 서구 국가들은 기독교를 통해 식민지를 지배하는 형태에서, 대부분 무슬림 독립투사들과 무슬림 정치인들이 자신들을 지배하는 기독교 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무슬림 국가가 독립되는 기쁨을 가져다주게 된다. 따라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근본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쓴 뿌리로 남아 있게 됐다.

그러다보니 지난 1세기는 명목상의 기독교를 등에 업고 들어온 서구 세속문화에 대한 무슬림권의 반감이 극에 달하게 되고 그 결과 급진이슬람주의의 아류로서 무슬림형제단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에는 탈레반이나 알카에다 같은 테러 집단의 등장으로 9.11사태와 같은 비극을 겪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슬람선교로 저명한 우드베리(J Dudley Woodberry) 풀러신학교 교수는 9.11사태이후 달라진 무슬림 선교의 동향을 소개하면서 효과적인 선교를 위한 발판을 제공해주고 있다(Muslim Missions: Then & Now - How a terrorist attack reshaped efforts to reach Muslims).

과거 십자군 원정과 제국주의의 이미지는 힘, 승리, 능력, 지배 등과 같은 것이었다. 따라서 최근 100년간 무슬림들안에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훨씬 더 많고 자신의 이슬람 종교에 대한 자긍심이 고조됐다는 것이 무슬림 선교의 최대 장애이다.

특히 유럽 열강들이나 선교사들에 의해서 도입된 기독교와 세속 문화에 대한 반감은 바로 무슬림을 병들게 하고 자존심이나 정체성마저도 뒤흔들 수 있는 전염병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집트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무슬림형제단"(Muslim Brotherhood)은 이슬람이 더 이상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자기 방어기제인 것이다. 그리고 이슬람권역이 아닌 서구에 대한 테러는 바로 "멀리 있는 적" 즉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으로 무슬림을 억압하는 외부 세력에 대한 선전포고와도 같다. 그래서 9.11사태는 상징적으로 더 이상 무슬림들을 억압하거나 강요하지 말라는 분명한 메시지였다.

지난 2006년과 2010년에는 아프간에서는 크리스천에 대한 박해가

극도에 달해 만약 무슬림이 크리스천으로 개종하면 투옥되거나 살해될 수 있다는 위협에 시달릴 정도였다. 파키스탄에서는 무슬림이 크리스천으로 개종하면 배교라는 이름으로 투옥을 당했고, 심지어는 길거리에서 살해를 당할 정도였으며 푼잡 지역의 주지사도 크리스천 장관까지도 배교에 반대했다는 명목으로 암살될 정도였다.

그러나 강경 입장으로 이슬람식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복음에 대한 무슬림들의 갈망을 더해줬다. 즉 1979년 이란의 호메이니 혁명과 아프간에서의 수니파 정권의 득세로 인한 탈레반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무슬림들은 사리아 법을 따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목말라했기 때문이다. 물론 박해가 뒤따르기는 했지만...

또한 정치적으로 극단이슬람주의 정권들이 득세하다가 다시 평정을 찾으면 이상하게도 무슬림들은 알라 하나님보다는 기독교의 하나님에게 빠져들기도 했다. 1989년 아프간에서 소련을 몰아낸 무자헤딘 세력 집권 이후, 이라크에서의 수니



무슬림들에게도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

와 시아파의 정권 다툼이후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의 자연재해 이후 무슬림들은 알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귀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크리스천 진영에서도 과거의 적대주의적 접근 양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선교를 위한 논쟁이 개화하게 된다.

더 이상 펫 로빈슨, 제리 팔웰 그리고 프랭클린 그래함 식의 정형화된 도식, 즉 이슬람은 개혁될 수 없다 대화할 수도 없는 악한 종교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자는 움직임이 가시화 된 것이다.

9.11사태 이후는 크리스천과 무슬림 양 진영에 서로가 어깨를 맞대고 평화를 구축해나가야 한다는 사명을 일깨워주었다. 9.11 비극으로 반 이슬람 정서가 고조될 무렵, 시애틀의 크리스천들은 이슬람센터만

의 무슬림들과 대화를 시작했고, 많은 신학교 이슬람이나 선교학에서는 심지어 남침례교까지도 무슬림들에 대한 부정적인 스테레오 타입에서 벗어나 가슴에서 우러나는 대화를 모색해나가기 시작했다.

신학에서도 이슬람에 관한 크리스천 서적들이 변증학에서 다리를 놓는 형태로 변화했고, 영적 영역에서도 이슬람과 기독교 서로가 대립각을 세우고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 모드로, 선교와 교회 개척에서도 이슬람에서 크리스천으로 개종해도 무슬림이라는 사회적 정체성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무슬림으로서 살았던 모든 것에서 해방돼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교환됐다.

(3면으로 계속)

“기독교 진리 훼손할 수 없다!”

뉴욕교계, 리버사이드교회 법회 반대 성명서 및 서한 발송

뉴욕교계가 9월 15일 맨해튼 리버사이드교회(사진)에서 열리는 법회에 관련해 반대서한 및 성명서를 발표했다.

뉴욕불교사원연합회와 리버사이드교회가 주관하는 '진제대중사 뉴욕방문 대법회' 전면광고가 일간지에 나자 뉴욕한인목사회(회장 김용익 목사)는 이를 좌시할 수 없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뉴욕교협(회장 김원기 목사)은 리버사이드교회로부터 참석요청 편지를 받고 지난 6일 한인교계의 입장을 밝히는 서한을 발송했다.

뉴욕목사회는 지난 10일, "타종교의 공존을 인정하되 기독교의 진리는 훼손됨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성명서를 내고 경계를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혼탁한 시대사상에 편승한 종교다원주의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각성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에 뉴욕의 오랜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리버사이드교회(Riverside Church)에서 불교의 참신 대법회가 열리게 됨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는 관련 교회 및 신학교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진리수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스타종교의 공존을 인정하되 기독교의 진리는 훼손됨이 없어야 하고(롬 1:18) 삼일치 속의 다양성은 인정하되 다양성 속의 일치를 거부하며(고전 12:12) 삼사랑과 평화를 나누되 하나님 의를 넘어서 수 없고(롬 1:17) 삼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믿는다(행 4:12)."

뉴욕교협은 리버사이드교회 담임목사 및 관계자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리버사이드교회는 한 개교회로 생각하기보다는 역사와 전통적 의미가 있는 교회"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건축된 교회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불교의 법회를 연다는 것은 이방인에게 절하는 행위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기독교인들을 모독하는 행위로 간주될 것입니다. 이번 불교의 법회가 한 인들에 의해 준비되었다는 사실에 우리 기독교 연합체인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는 통탄을 금할 수 없으며, 이번 일로 종교간 갈등이 심화됨은 물론이거니와 반목과 질시가 생겨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라며 법회취소를 요청했다.

(유원정 기자)



2면

영혼의 쿠션 키우면 자유로워진다!



3면

진정한 리더는 잃어버린 신뢰 회복할 수 있어야



7면

종교다원주의 연구 (5) 조진모 목사(합동신학교 교수)



16면

인터뷰 김승천 목사(파리 포넬프장로교회)

담임목사 임직 및 시무장으로 안수식 예배

-주관: PCA 한인서남 노회 전권 위원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PCA 한인 서남노회 소속 인랜드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 임직 및 시무장으로 안수식 예배를 제 57차 PCA 한인서남노회 후 드리하고자 하오니 오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11년 9월 18일 (주일) 오후 4시
장소: 인랜드교회 예배센터

1101 N.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

PCA 인랜드교회 교우일동
www.inlandchurch.org

담임목사 임직

박신철 목사



시무장으로안수



백상철



이중의

1101 N.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





시론

목사를 찾습니다



김기원 목사 (장위제일교회)

지금 우리나라는 목사 홍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 신학교와 교단 소속 신학교에서 해마다 많은 목사들이 배출되고,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여자 목사님을 배출하는 신학교나 교단이 많아서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서 선택의 기회나 여유가 많아서인지 수십 명, 백 수십 명의 쌓여진 이력서나 소개 받은 목사들 중에 마땅한 목사, 원하는 목사를 쉽게 만날 수 없

다고 하는 소리를 자주 들어왔습니다. 각 교단이나 신학교마다 계획 없이 학교운영만 생각해서 많이 배출하므로 많다보니 목사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졌다면 이미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보며 다소 위로를 받겠지만 만일 요즘의 목사의 인격이나 사명감이나 성도들의 사모하는 목사가 없어서 그런 목사를 찾고 있다면 서글픈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력은 옛날과 비할 바가 없고 설교도 다 잘 하는데 철저한 사명감과 소명감, 그리고 강한 믿음으로 무장된 지도자형 목사는 흔하지 않다고 하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양심적, 상식적 신학교 운영보다 단시일에 목사안수를 주므로 그것을 미끼로 학생모집을 하는 학교도 적지 아니하므로 더욱더 흔하고 귀한 현상까지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봅니다. 목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소유했느냐보다는 존재감으로 존재의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되겠는데 있으나마나 아니 오히려 있으므로 세상에서 인간 공해가 된다면 서글픈 정도가 아니라 가슴을 치며 통탄 할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춘추전국시대에 많은 스승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이나 교훈, 삶의 아름다운 자취를 남긴 자들은 다 자신을 잘 관리하여 존재를 남겼습니다. 목사는 목사라는 이름에 맞는 삶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영향력 있는 목사로 남기위해 욕망이 이끄는 대로 무분별하게 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잘 관리해 목사라는 이름과 직에 걸맞은 존재로 승화시키는 지혜와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장로회 정치 제4장과 14장, 15장, 16장의 자격과 조건을 다 구비하는 것도 질서와 제도상 철저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즉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거룩하고 진실한 성직자로서의 이미지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목사직을 가지고 목사의 직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자가 수백이 아니라 수천 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목사가 많은데 목사를 찾고 있는 현실 앞에 너무나 부끄러움과 무거운 가슴으로 오늘도 사역에 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의 정의구현을 위해 묵숨까지도 바치며 확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목사직을 위해, 그 사명을 준수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약속과 거룩한 의리를 지키며 목사로서의 날마다 결단과 행동하는 삶이 더욱더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위기시대를 “죽으려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는 정신으로 목사직 불황을 기회로, 목사직의 위기를 희망으로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영혼의 쿠션 키우면 자유로워진다!

국제제자훈련원, 기독교적 내적 평안의 비밀 소개



우물의 깊이는 돌멩이 하나를 던져보면 알 수 있듯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면 그 사람의 마음 깊이를 알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생각 없이 던지는 말 한마디로 상처 받고 비난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 깊고 강한 내면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의 훈련이 요구된다. 세상에서 가장 번덕이 심하고 상황의 지배를 받기 쉬운, 즉 영혼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 '생각'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이곳을 보호하고 가꾸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붓기 때문이다.

우리는 실형실이나 무중력 공간에 살고 있지 않다. 우리 주위에는 늘 재해, 금융위기, 전쟁, 기근, 중독, 갈등, 이별, 사별, 실패, 허무감, 승진문제, 질병문제 등에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주위 환경은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자극들에 어떻게 반응하는 지를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의 안정감을 확인할 수 있다. 리더는 외부의 반응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주위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내적 평안을 유지하는 힘을 가진 사람인 것이다.

그 비밀은 바로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을 내 마음 속의 '쿠션'을 통해서 완화시키고 자신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반응을 얻을 수 있고 긍정적이고 희

활분물들을 제거하고 올바른 반응을 하게 될까?
- 풍부한 독서와 묵상으로 영혼을 살찌우라.
- 날마다 겸손의 우물을 깊게 파

정으로 삶의 자유를 만끽하고 행복한 사람이다.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자신이 스스로 발견하고 결정한 삶의 고결한 원칙들, 곧 진리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은 자신보다 크고 위대한 존재 앞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잠잠히 그분의 뜻에 따르는 반응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외부자극을 마음속 '쿠션' 통해 완화시키고 자신 개발 QT, 성경공부, 기도로 문제에서 분리하는 비결 체득

망적인 반응은 진정한 자유를 가져 오게 되며, 외부의 자극에 바로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정신적인 쿠션을 가진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

모든 사람들은 각기 자극에 반응하는 것에 따라 레벨 1, 2, 3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은 마치 구름 아래의 악천후에도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은 구름위에는 화창한 날씨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비유한 것이다.

레벨 1의 수준: 자극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단계.

레벨 2의 수준: 구름 아래의 삶과 위의 삶을 오라카락하는 과도기로 우리 내면의 쿠션에 섞여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정화의 기간.

레벨 3의 수준: 먹구름 없이 찬란한 태양이 빛나는 완벽한 자유를 경험하는 단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러한

라. -호흡을 느낄 때마다 마음 쿠션을 생각하라.
-부정적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기로 결심하라.

그리고 이러한 훈련은 바로 내면을 가꾸는 신앙생활이기에, 다음과 같은 훈련이 규칙적으로 요구된다.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QT하기 △일주일에 성경 한 장을 3시간 이상 투자해서 하는 성경공부 △머리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는 습관화 된 기도.

이러한 훈련들을 실천하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문제로 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비결을 체득해서 마음의 쿠션을 키우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영혼에 쿠션이 자동적으로 생성되고 풍성해진다.

영혼의 쿠션이 풍성한 사람은 진

자유케 하리라"는 진리가 오는 날 유효한 것이다

놀라운 일은 이러한 자유로부터 오는 행복이 주위를 조금씩 변화하게 만드는 힘을 갖는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쿠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겸손함으로 피어나는 향기가 있기 때문이다. 이 마법의 향기는 비밀스런 힘을 갖는다. 그들에게도 이 향기가 서서히 스며들어 굳게 닫혀있던 자유와 행복의 문을 스스로 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결론으로, 마음의 쿠션을 키우면 자유로워진다. 누구나 과거의 아픔이나 미완성된 자아가 있을 것이다. 가시덤불 같은 고단한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생각의 선택을 올바르게 해야 한다. 영혼의 쿠션을 가꾸는 것으로 인생의 운전대를 올바르게 돌리면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진 영혼에서 쿠션이 풍성한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8(광고국) E-mail : la@chpress.net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장서리:유원정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 표)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SINCE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Certificate Program
BACHELOR of Religion with Concentration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Church Music
MASTER of Mission Languages with Concentration in TESOL
MASTER of Religion with Concentration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Church Music

MASTER of Divinity M.Div.
D.Min with Concentration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Christian Leadership, Church Music, Mission Studies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2. 원격교육(On-Line) 강의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직장을 떠나지 않고 학위 취득

Midwest 특징

-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 F-1 VISA 발급 (동반 자녀는 공립학교 무료 교육)
- 3. 수시 입학 가능.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 E-mail. usa@midwest.edu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강의 CD(MP3) 발매

본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지난 5월 2일부터 5일까지 라스베이거스 사우스 포인트 호텔에서 개최한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및 평신도세미나의 강의 20편 전체가 한 장의 CD(MP3)로 나왔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를"라는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18명의 전문 강사들이 복음에 위협받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긴급 당면과제인 2세대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시키며, 축소되어가는 주일학교의 부흥과 복음 전파에 대해 고민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바른 사역에 대한 신학적 접근으로부터 실제적 교육현장 접근까지 엄선된 17강의(목회자, 평신도 각각)와 3회의 저녁영성집회 전 강의를 모두 담았다. 이번에는 특히 큰 호평을 받았던 평신도지도자 강의도 CD로 제작했다. 총 소요시간 40시간, 3개의 CD(목회자강의 2개, 평신도지도자 1개)로 묶어 가격은 30달러. 강사는 김홍도, 지용수, 소강석, 박재호, 황의영, 여운세, 송용길, 이영섭, 김만경, 김상덕, 조일규, 홍민기, 송규식, 김혜천, 박현남, 김승연, 장영춘 목사로 강의한 순서대로 되어있다.



주문: LA: 601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 (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가격: 30달러 (미국내 우송료 포함, 타 국가는 우송료 별도)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진정한 리더는 잃어버린 신뢰 회복할 수 있어야

리더십저널, 달라스신학교 맬퍼스 교수의 크리스천 리더십 핵심 소개

현대 사회에서 리더십은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주제다. 어느 분야에서든 리더십이라는 말은 유행어가 되다시피 했고, 교회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세속적인 리더십의 원칙과 방식이 교회와 기독교 단체를 점령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리더십보다 세상이 말하는 리더십에 더 귀 기울이는 그리스도인 리더가 늘고 있다.

달라스 신학교 목회학교수, 오브리 맬퍼스는 이 문제점을 분명하게 인식한다. "리더십이나 리더 양성이나 하는 말은 자주 하면서 막상 무엇을 개발하고 양성하는지 모른다면 어찌 되겠는가?" 따라서 그는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의 본질과 그 리더십을 현장에서 발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전략들을 공개한다. 리더의 신뢰를 형성하는 요소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단계, 리더의 역량, 사람들이 잘 따르게 만드는 열쇠, 상황에 따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단계까지 리더십의 총체적인 것까지 자세하게 설명한다.

특히 신뢰를 잃고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리더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해준다.



리더에게 필요한 많은 요소들 중에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 즉 전방을 향한 동력이 꼭 필요하다. 또 동시에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추진력을 가진 리더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끌어가기 위한 '끌어당기는 동력'이다. 바로 이러한 끌어당김의 힘은 다른 아닌 신

피할 생각도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실수를 악용하는 것을 걱정하기보다 진정한 리더로서의 정직함과 정렴함을 보여줘야 한다.

책임을 져야 한다

격하게 반응 할 때에도 나와 내가 보호해야 할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사

사람 '끌어당기는 동력'은 신뢰에서 얻어져

실수 인정하고 책임지고 사죄 결과감수하며 해결책 모색해야

뢰에서 얻어진다.

리더가 팀의 구성원들을 신뢰하는 만큼 리더 자신도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앞으로는 나아가지만 뒤에 따르는 이들은 아무도 없는 신세를 면치 못한다.

하지만 리더들도 사람이기에 실수를 하고 이러한 실수로 인해 신뢰를 잃어버리기도 한다. 실수의 정도에 따라 그 손실이 가능하겠지만 분명 리더의 역할에 큰 영향을 준다. 그래도 이 때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가?

실수를 인정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자신이 잘못된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굳은 각오를 보여줘야 한다.

사죄해야 한다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 용서를 구해야 한다면 당사 용서를 구하라. 잘못을 하고도 뉘우치지 않는 모습은 뻔뻔하고 엄치없는 모습이다. 결코 리더의 모습이 아니다.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용서를 빈 후에 이에 대한 반응 또한 받아들여야 한다. 용서해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역할함을 해소하기 위해

람들에게 물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함께 풀어나가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싸늘한 침묵이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책을 강구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결론으로, 한 번 잃어버린 신뢰는 쉽게 회복할 수 없다. 그래서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만약 신뢰를 잃어버렸다면 오늘 그 자리에서 돌이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무리 이 세상은 사람들 사이의 신뢰가 메달라가고 있다고 말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러한 신뢰를 회복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신뢰 받는 리더들이 많아져야만 한다.

무슬림들의 예수그리스도 따르는 열기 기대!

〈1면에서 계속〉

특히 9.11사태는 테러에 대한 선교 의식의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먼저 9.11사태로 인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테러의 위협은 이슬람권 선교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에서 바로 고난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었다. 여기에 선교사들의 보안 또는 안전교육 즉 선교 일행 중 누군가 납치됐을 상황에 대한 매뉴얼 교육은 이제 선교사 준비과정의 정식교육이 됐다. 또한 무슬림들에게 적의나 불필요한 행동들을 삼가 할 수 있도록, 이슬람 문화 전반에 걸친 심도 있는 교육이 진행될 정도로 선교사들의 안전과 투명성이 보장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고무적인 현상은 9.11사태 이후 무슬림들을 위한 선교사로 자원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타드 존슨(T. Johnson, an editor of the Atlas of Global Christianity)에 따르면 2005년과 2010년 사이에 무려 26%의 선교사 지망생들이 증가했다.

또한 "세계화"의 바람으로 무슬림 선교사들이 아직까지 복음을 접해보지 못했거나 들 어보지 못한 무슬림들을 위한 네트워크까지 결성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선교를 위한 인적, 물질적 자원들을 교류해 책자와 CD(From Seed to Fruit)까지 출간했다.

전반적으로, 현재 상황은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무슬림들이 크리스천으로 개종하고 있는 시점이다. 특이한 점은 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인 무슬림이라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무슬림들은 서구 선교사들의 언어와 예배 유형에 맞춰서, 또 다른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언어와 토착화된 예배 유형 안에서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또 다른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사회-종교적 무슬림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예수를 구주로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믿으며, 심지어는 북아프리카에서는 임만(imams)이 무슬림 사원에서 성경을 들고 설교를 하는 등 하나님은 이슬람권에서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신다.

마지막으로, 아랍권에서 일고 있는 "민주화 열기"는 희망과 동시에 관심을 제공해준다. 9.11사태와 마찬가지로 민주화에 대한 갈망은 "불"로부터 시작됐다. 민주화를 위한 열망의 불씨는 튀니지에서 시작돼, 이집트로 그리고 전 아랍권에 활활 타오르고 있다. 과연 서구권과 같은 민주국가로 나아

갈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이슬람 강경 노선으로 선회할 것인지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운명을 알고 계신다. 그러나 중요한 동향은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세속적인 젊은 세대들이 더 이상 과거의 알카에다와 같은 급진적 이슬람주의보다는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는 민주주의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파키스탄의 페샤와 지역은 무자헤딘이나 탈레반 세력의 은신처이자 포로수용소로 유명하다. 여기 수용되어 있는 옛 전사들의 자녀들은 한 겨울이나 한 여름에도 맨발로 추위와 열기를 이겨낸다. 그런데 한 기독교 구호단체에서 수백 벌의 신발을 가져와 신발을 나눠주기 전에 먼저 아이들의 발을 씻겨주기(세족식) 결정했다. 크리스천 자원봉사자들은 아이들의 더러운 발을 정성스럽게 씻겨주고, 상처



에는 연고를 발라주면서 소리 내지 않고 신발을 신겨주기 전에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다.

몇 달이 지난 후, 페샤와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에게 누가 가장 훌륭한 무슬림이냐고 물었다. 한 조그마한 소녀는 손을 들고 대답했다. "불신자들"(the kafirs). 예상치도 못했던 대답에 겨우 놀란 가슴을 진정시킨 교사는 그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그 소녀, "무자헤딘 전사들은 우리 아버지를 죽였지만 불신자들(크리스천 자원봉사자들)은 내 발을 씻겨주었다"고 응답했다.

결론으로, 무슬림들에 대한 향후 선교는 9.11사건이나 심지어 아랍권의 민주화 열기에는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 대신 무슬림들 자신들의 가슴에서 타오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열기가 오히려 무슬림 선교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도상에서 만난 제자처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눅24:32)라고 했던 대화들이 계속해서 심장에서 메아리치고 있다.

한국의 경기도 안양소재의 갈멜산금식기도원 담임인 조성근목사가 LA에서 기도성회를 인도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미주 갈멜산 기도성회

강사_ 조성근목사

-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담임
- 나사렛 대학교 겸임교수
- GST대표
- KWMA 운영이사
- 총신대학교(Th.M/Th.D.cand)
- 미국 ORU(D.Min)

일시 1차 9월 27일(화) ~ 10월 1일(토)
2차 10월 3일(월) ~ 10월 6일(목)
매일 오후 7시 부터 9시
* 주일은 기도성회를 하지 않습니다.

장소 3407 W 6th St. Suite 800
Los Angeles CA 90020(로얄빌딩)
집회문의(213)514-0039 / (213)393-3131

주최 갈멜산금식기도원
www.galmelsan.or.kr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자랑의 위험

자랑한다는 것은 자랑할 수 있는 대상을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분명 복된 일이다. 나에게

자랑의 요소가 있음은 분명 특별함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랑은 자칫 잘못하면 분파를 만

들고 공동체를 해롭게 만든다.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순교한 클레멘트(Clement)가 있다. 그는 로마의 주교로 로마에 첫 번째로 세워진 클레멘트 교회를 사역했던 분이다. 그가 헬라어로 쓴 고린도교회에 보낸 편지가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그 편지는 1628년 콘스탄티노폴의 대 주교 루카리스가 고대 알렉산드리아 문서 가운데서 발견한 것으로 신약성경 이후 최초의 기독교 작품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료다. 역사적으로 고린도교회는 남달리 파당이 많았던 교회였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 일년 반 동안을 체류하면서 사역한 교회인데도 말이다. 우리는 여기서 지상교회의 불완전성을 배우게 된다.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향해 서로 화목하

라고 권면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강한 편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수그러들지 않았던 것 같다. 이유는 속 사도로 칭하는 클레멘트의 편지에도 이런 문제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편지에는 안다는 것, 방언의 문제, 특별한 카리스마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목회자를 거스르고 대항하는 사람들을 권고하는 내용이 있다. 이 시대에도 은사 체험한 사람이 안하무인적으로 행동함으로 교회의 질서가 흔들리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은사 체험에 대한 간증을 소개하면서 바울은 부득불 자랑한다고 했다. 고린도교회의 유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심사년 전에 셋째하늘에 올라갔던 사건을 털어놓았다. 그러면

서도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다. 약한 것을 자랑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온전해질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강한 것만을 자랑하려고 한다. 우리는 은사체험을 자랑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것을 자랑한다. 극심한 교회 싸움을 경험한 어느 분은 말한다. "나는 열심 있다는 사람을 경계한다." 그런 사람으로 인해 교회는 항상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는 분명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열심은 언제나 주님을 향한 열심이어야지 이웃을 향한 열심일 때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교회 역사에서 신비한 체험으로 인한 혼란은 굉장했다. 체험한 자는 누구의 권고도 듣지 않고 심지어는

성경의 말씀까지도 뛰어넘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내가 영적으로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나의 영적 전명으로 삼게 된다. 내가 경험했기에 나는 특별한 사람, 또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인식한다. 그래서 누구의 충고도 수용할 수 없게 되니 그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싶다. 나의 열심과 영적 신비한 체험이 신앙과 교회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성도의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특별한 것이 상대방을 향한 자랑으로 사용될 때 그것은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지 않다. 그렇다면 나는 자랑의 요소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그런데도 자랑하고픈 욕구가 일어나니 나는 언제나 참 성도가 될 수 있나 싶다.

푸/른/초/장

박창윤 목사
(삼보교회 담임목사)



오늘 본문의 베엘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베엘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야곱이 베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귀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이 가 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압박강 나무에 이르렀을 때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야곱은 이제까지와 같이 인간적인 모든 지혜와 방법을 다 동원하여 대비를 세워 한 때, 두 때, 세 때로 나누어서 모든 사람들을 강 건너 가게하고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야곱

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축복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입으면 야곱은 베엘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 서원을 하였던 곳으로 올라가야 했지만 야곱은 숙곳에 머물러 집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고 명딸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첫째,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았는데 야곱은 베엘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숙곳에 집을 짓고 생활했습니다.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16절 이하에서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베나민을 낳고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지키지 아니함으로 야곱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왔습니다.

내가 시간을 바치겠다, 몸을 바치겠다, 재능을 바치겠다, 물질을 바치겠다 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그때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우리 개인과 가정에 손해가 오지 않습니다. 가끔 '새롭게 하소서'에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아비 집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은 즉 우상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어제까지 우상을 숭배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말합니다. 출3장에 보면 모세는 호렘산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타오르는데 타지 않는 것을 보고 달려옵니다. 그 모세를 향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3장에 보더라도 요단강을 건널 때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정결케 할 때 하

1절에서 하나님은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고, 3절에서 단을 쌓겠노라고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삭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신앙인은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시간 전에 나와야 됩니다.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의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말씀 선포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또 디아코니아(봉사)를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찬양대, 기악 팀의 봉사, 기도 봉사, 헌금위원, 안내위원, 그리고 반주, 지휘, 방송, 차량위원, 주방에서 식사로, 교육 기관에 속한 교사로, 구역에서, 여전도회, 남전도회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봉사자들입니다.

그리고 코이노니아(친교), 성도간의 친교와 사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아픔을 위로하고 기도해주며 도와주는 이러한 사귀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 전에 나와 준비하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봉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친교 하는 예배가 회복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말씀에 감사하며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는 그러한 예배가 회복될 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 베엘로 올라가자” 창세기 35장 1-8절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 베엘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 하십니다. 일찍이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던 길에 한 곳에 이르러 돌베개하고 잠을 잤는데 사다리가 하늘과 땅에 닿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여기가 하늘의 문이다" 하고 베고 자던 돌을 기둥 삼아 기둥을 붓고 제단을 쌓은 다음에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나로 외삼촌 집에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곳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소독의 십일조를 드리겠습니다"(창28:20-22). 그리고는 외삼촌 집으로 갔습니다. 외삼촌 집에서의 20년 동안에 야곱은 일가를 이루며 아내들과 자녀들과 종들과 많은 짐승의 떼를 이루었습니다. 그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 가나안으로, 베엘

은 압박 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즉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때로 나 홀로 해야 하는 씨름이 있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어지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해결해주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되어져 절 수 밖에 없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형 에서를 만나 열사안고 이산가족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칼로 대적하여 맞서나오던 에서가 변하여 이제는 스스로 앞잡이가 되어주겠다고 합니다. 위기 앞에 기도로 승부를 걸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예

나갔다가 하위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에 의해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야곱의 아들들이 보복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창34:30에 보니 야곱은 큰 두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 땅 부족들이 연합하여 타지에서 온 이방인인 야곱일행을 친다면 야곱일족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일찍이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했던 곳인 베엘로 올라가라 하십니다. 우리 때로 살면서 일생일대의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와서 간증하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십일조를 떼어 놓았다가 급해서 썼는데, 가족들이 아파서 병원비가 그만큼 들어가서 세배, 다섯 배의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둘째, 죄를 청산해야 합니다.

본문 2-4절에 야곱은 '우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하란 땅에서 가져온 우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민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신에게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루에 2만3천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창12:1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본토 친척

님을 만날 수 있는 베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베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임금은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저를 바깥 어둔 곳에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던지라"는 것입니다. 계19:8에 성도의 옷은 흰 세마포 옷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꾸어 입어야만 베엘로 올라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사귀 수가 있습니다.

셋째,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2011년 / 제3차

종말론 핵심 세미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뇨 (마 24:45)

- 일시: 2011년 9월 26일(월) 오전 10시-오후 3시
- 장소: 주 예수 사랑 교회 (담임목사 강유남) (551) 655-4224
(1155 HENDRICKS CAUSEWAY, RIDGEFIELD, NJ 07657)
- 대상: 목사, 사모, 전도사
- 강사: 정진욱 목사
- 내용: (1) 마지막 한 이레 (2) 거짓 선지자(들)
(http://blog.daum.net/pastorjeong 참조, 회비 없음)
- 문의: 908-265-2766, pastorjeong@hotmail.com

담임목사 청빙 공고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캐나다 노회 소속 벨빌한인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성실하게 목회하실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자격조건

1.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소속 목사이거나, 교단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는 목사
2. 이민 목회 경력이 3년 이상인 목사 (부교역자 경력 포함)
3. 영어 구사에 불만이 없는 목사

제출 서류

1. 이력서 (사진 2매 포함)
2. 목회비전서
3. 목사안수증명서
4. 졸업 및 전 학년 성적 증명서
5. 추천서
6. 일 년 내의 설교 2편 (Tape이나 CD)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 기한: 2011년 10월 15일 (토)까지
제출하실 곳: hang921@hotmail.com (모든 서류는 이메일로)

문의: 김재우 집사 (613-394-6353(F), 613-885-1881(C))
박형배 목사 (905-467-5174)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벨빌한인교회
임시 당회장: 박항배 목사

교육칼럼

주일학교교육을 개혁하라(1)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주일학교(Sunday School)의 대상은 유아부터 영아, 유치, 유년,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청년, 장년부까지 아주 광범위합니다. 그러나 제가 선정한 대상은 2세부터 12세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차세대부흥과 교회정착을 위한 솔루션(Solution)을 제시할 때, 바로 그 대상이 2/12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틴에이지(중고등학생)들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후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전의 글에서 제가 차세대 솔루션을 말하면서 '맛볼을 놓아라'라는 슬로건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이미 포스트모더니즘 문화를 접한 청소년 세대에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산불을 끄기 위해 비행기로 물을 뿌리고 많은 소방대원들이 희생을 하며 수고를 해도 끝 수 없는 것처럼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산불이 타오르는 것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맛볼을 놓아 그 불길을 잡듯이 세속문화에 타오르고 있는 다음 세대들의 불길을 잡기 위해서는 조금 떨어져 아직 세속문화의 불길이 닿지 않은 2/12(영아, 유치, 유년, 초등부) 어린이가 바로 맛볼의 대상이기에 그들을 바르게 교육하고 새로운 기독교문화

말하고 쓰는 것만이 교육이 아니라 아이의 성품이 형성되기까지 과정과 인지발달심리에 의한 감성적, 감각적, 지적 발달 과정을 모두 포함하여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교회교육 특히 주일학교 교육은 영어만 할 줄 알면 아무나 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주일학교교육을 전담하는 디렉터를 기독교교육을 전공한 분으로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현직 초등학교교사나 교사자격증을 가진 분을 선택하여 담임목사님을 통해 신학적인 훈련과 헌신의 단계를 거친다면 아주 훌륭한 디렉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교육부 전담자들은 얼굴을 익힐 만하면

만나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나라를 세워 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지성의 를 가진 인격체로서의 인간이 배양되도록 전인교육 즉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 사회적, 도덕적, 영적으로 균형적인 발달을 꾀하여야 합니다.

교육은 과정입니다. 한 번 설명하고 이해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마다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일 년에 한 번쯤 갖는 수양회에 참석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잠시 변화될 수는 있어도 계속해서 삶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인 교육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기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 가서는 장차 선교사가 될 것처럼 도전을 받지만 다녀온 뒤로 그 아이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감동을 잊게 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사가 원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실망해서도 안 됩니다. 아이들은 10번 100번 바뀔 수 있고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마다 개인차가 있는데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

분명한 목표 세우고 균형적 잡힌 전인교육 해야 동적학습 통해 그리스도 직접 만나고 체험하도록

를 배양시켜 그들로 청소년기를 잘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받아 장성케 하여 세상을 바꾸는 인물들로 키워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교육을 안했다는 말인가? 라는 반문을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를 다니던 다음 세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조용하게 떠나버립니다. 우리 부모세대가 헌신을 드려 세운 교회와 선교를 우리의 자녀들이 이어가는 교회가 아직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이미 이전의 글에서 여러 가지 원인을 규명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주일학교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고쳐야 할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교육 즉 가르친다는 것은 열성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마치 의사가 아닌 사람이 칼을 들고 환자를 수술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를 모르면서 그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일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듣고

특히 아직 인격적으로 책임성이 없고 자녀를 낳아 길러본 적이 없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대학생들을 교사로 세우는 것도 문제지만 디렉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나 교육목사가 신학은 공부했지만 전혀 교육에 무관한 분들을 영어를 하니까 교육부를 맡아 아이들을 지도 하라고 하는 것은 더욱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나이에 따라 그 아이의 세계관과 관심사가 다르고 심리적으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알아야 적절한 메소드(Method)를 개발하여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하 나님 말씀이니가 따르지 말고 듣기만 하라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어 하고 '교회는 쏘 보링(So Boring)한 곳'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재미있고 가고 싶은 곳이 되면 왜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인정해야 우리가 안고 있는 난관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찾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아직까지 시도해본 적이 없고 경험이 없어 염려도 있겠지만 결단을 내려 시행해보고 착오가 있으면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면 됩니다.

떠나고 또 새로운 분이 오기 때문에 교육에 일관성도 없고 정거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진정한 애착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만일 평신도사역자를 주일학교 디렉터로 세운다면 떠날 일도 없고 평생 교육부를 위해 사역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에 일관성도 있고 커리큘럼을 세워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주일학교교육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 믿습니다. 주일학교 디렉터는 주일학교교사들에게 교육목표와 교육이론 및 교육철학 그리고 교육심리와 신체 심리 및 인지발달심리 등을 알게 하고 교육방법(Teaching Method)의 개발과 커리큘럼 셋업(Set Up)에 아이들과 방향을 제시하고 교사들과 함께 동역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학교가 변화되면 주일학교 부흥은 물론 부모들도 더불어 교회에 참석하게 되기 때문에 교회가 전체적으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역동성이 생기고 교회가 더욱 젊어질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살펴 보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일학교 교육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가 터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다만 조금 빠른 아이 또는 조금 늦은 아이들이 있을 뿐입니다. 항상 기대감을 주고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은 기회입니다. 학생으로 하여금 가능한 많은 경험을 갖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패밀리 위임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예배가로 키워지기 위해서는 예배안내부터 모든 예배순서에 아이들을 세워 대표기도도, 찬양도, 성경낭독도, 헌금수종도 어려서부터 체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특히 주일학교 프로그램에서는 뮤지컬이나 연극 또는 오페스트라 같은 활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체험과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교육사조와 정신을 말한다면 "Doing First, Thinking Next"라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가 교육 받을 때는 먼저 이해하고 생각한 다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뛰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행동하면서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보다 뒤떨어지게 됩니다.

(15면으로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SPC0316@yahoo.co.kr

Q: 동성애와 동성애 결혼문제가 현재 미국에서 도를 넘어 갈수록 교회마저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교단도 있고 캘리포니아는 SB48로 동성애 역사 교육 법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목사님의 성경적인 답변을 원합니다.

-나성에서 김장로

A: 로마서 1장을 보면 이방인의 죄가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도덕적인 타락의 극치가 동성애입니다(롬1:26, 27). 이것은 한마디로 변태입니다. 비정상적인 것(Abnormal) 한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황제는 신으로 숭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로마황제는 신으로 추앙받게 되자 못할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수많은 여인 등을 자기의 성적인 희롱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변태적으로 변해 동성을 사랑의 대상으로 실험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황제 15명중에 14명이 동성연애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선진 국가에서는 호모섹스를 법적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왕성합니다. 동성애의 합법화는 흑인 인권문제나 여성 인권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다 같은 차원이라고 주장합니다.

LA 시의회가 얼마 전 12명 만장일치로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을 했습니다. 이 법안은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적인 부부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

동성애 합법화는 흑인/여성 인권문제와는 다른 차원

게 해준다는 법안입니다. 그동안 캘리포니아는 "결혼을 한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만 인정하는 결혼보호법"(Defence of Marriage Acts)에 따라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DMA를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제리 브라운은 지난 15일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공립학교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의 역사에 대해 유치원에서 12학년 필수교과목인 사회과학 부문에서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동성애자, 동성애부모, 동성애부부는 좋은 것이라고 가르치는 법안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도덕과 가치관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법안입니다. 마치 공산당 교육을 받은 북한 자녀같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공산주의 교육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은 적극적으로 stop 48의 청원서에 서명해서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 시에 6일째 되는 날에 동물, 짐승 창조와 함께 인간 창조가 같은 날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영어로 God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하여 읽게 되면 Dog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내 마음의 부끄러운 정욕대로만 살면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위치에서 떨어져 짐승, Dog 즉 개, "개 같은 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짐승은 솔직히 동성애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한수 더 떠서 타락한 교회와 교단은 사회보다 한발 더 앞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아닌가의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성공회나 PCUSA교단은 한 수 더 빠릅니다. PCUSA교단은 과거 한국에 언더우드라는 장로교 선교사를 파송했던 보수적인 교단이었으나 이제는 많이 좌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인정할 뿐 아니라 동성애자도 교회에서 영연히 목사, 장로, 집사가 될 수 있도록 교단 헌법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반대(against)하는 불법행위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미동부 국제기아대책기구
콜롬비아 결연아동 후원을 위한

자헌 이성순 화백 초청

자선전시회

Sharing Love

MUSIC • ART • DANCE

일시 9월 27일(화)~29일(목)
Sep. 27-29, 2011

Exhibition
9월 27일, 28일(화, 수) 11am~7pm
Art Performance 즉석시연 2pm~3pm, 6pm~7pm

Art Exhibition
9월 29일(목) 11am~4pm
Special Art Performance 7pm~8:50pm
(Include Reception)

장소 **대동연회장**
Daedong Manor (Korean Village)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출연 Peter Howard(Cello), Hui Wang(Violin)
David Paterson(Flute), Rev. Sang Y Yu(Piano)
Young Ch Park, KiTaek Song(Ten), Erica Moon(Sop)
뉴욕여성중창단, 필그림선교부흥, Zoe선교부흥
Seven Heaven, InG Dance&Kids

후원 CTS NY, KCTV, KCBN, KRB, 한국일보, 중앙일보
Supportor 뉴욕일보, 미주 크리스천신문, CZoneUS.net, Churchus.net
ny.christianitydaily.com, USAamen.net

Ticket \$20 (Include Reception)

Information 516-662-9322, 917-715-1178

주관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Fundraiser **GMA** 미주 세계선교나눔회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필리핀의 팡우타란 사마(PANGUTARAN SAMA)



약간 규모가 작은 부족 그룹이다. 사마 또는 사발(SAWA)이란 말은 필리핀 중부에서

팡우타란 사마족은 필리핀과 대도 보르네오섬 사이 술루 다도해에 위치한 섬에 살고 있다. 팡구타란 사마인들은 사마보다 약간 규모가 작은 부족 그룹이다. 사마 또는 사발(SAWA)이란 말은 필리핀 중부에서 보르네오 동부 섬과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에서 로타까지에 위치하는 사마-바우(SAMA-BAWA)어를 말하는 다양한 부족들을 통틀어 말한다. 이들은 대체로 정치적 통일성이 결여된 단결력이 없고 개인적으로 사마인의 정체성은 그들의 방언과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 구별한다. 사마인들은 원래 술루 북동쪽 섬으로부터 건너오 남에서 분리된 해안과 섬들에 위치한다. 그들은 기원후 1세기경에 중국의 무역이 확장하면서 이주해온 것으로 추측된다. 대부분 섬의 남쪽과 서쪽

로 이주하여 술루 다도해를 따라 자신의 영역을 건설했다.

삶의 모습

사마인들은 바닷사람들보다 농업이 주요 경제수단이다. 해상무역과 농사일도 종사한다. 이 지역 전체가 아자유('carr')를 내는 아자열매 속살은 주요 수입 상품이다. 그러나 아자유의 보유가 소량이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충분하지 않다. 상업 역시 사마인들 사회에서 중요하다. 해상에서 생활하는 배사립으로서 갖추어야 할 항해기술과 건어물과 거래망('TRIPANG')('해산', 진주, 진주조개 등)의 보급품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사마 원주민들은 아주 조밀하게 밀집된 가족들이 해변을 따라 잘 보호된 모험으로 뱃에서다. 어떤 지역은 가족들이 바로 바다위에 지어져 있거나 어떤 지역

은 해변 가를 향해 위치하고 있다. 바다 위에 있는 집들은 날씨가 혹은 좁은 다리로 물과 연결돼 있다. 1-3미터 높이의 대밭목위에 지은 가족은 보통 부엌이나 가파리불은 사각형의 거실이다. 가족들은 텃밭(또는 숲이 같은 다세대 가옥)이라고 불리우는 다세대 주택 단지가 가까운 친척들을 이웃으로 무리를 지어 산다. 다세대 가옥 통장에 해당하는 자가 텃밭 대변인 역할을 한다. 어떤 경우 텃밭은 교구(AGRI)와 일치하기 때문에 모든 회원들이 단일사원(MOSQUE)에 소속된다. 고기 잡는 일과, 배 만드는 일, 그리고 주물 일들은 남성들의 일이며, 매츠(MATS)를 짜는 일과 도기를 구워 파는 일은 여자들의 몫이다. 농사일과 상업은 남녀가 함께 관여한다. 사마인들은 전통적 인 춤, 노래, 타악기, 실로폰 음악(꼭금과

기), 매츠 염색, 음식달걀 그리고 목조공예들로 유명하다. **신앙** 사마인들은 거의 모두 수니파 무슬림이다. 종교문체에 박식한 자를 '이만'('이슬람지식자'), 그리고 다른 이슬람 관련자들은 파키(PAKI) 혹은 파킬(PAKIL)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들은 모든 주요 종교행사와 신앙적인 상담을 실시한다. 금요일 도회는 이슬람사원(MOSQUE)에서 열리며 아침은 일일기도가 한 주간에 절정이라고 하는 기도회이다. 또한 연중 이슬람 종교행사는 월력에 따라 집행하며, 여기 포함되는 것은 라마단이다. 사마인들은 아직도 전통신앙을 지키고 있다. 가까운 묘지에 모셔둔 죽은 자의 신을 기억하며 지속적으로 그들의 삶을 간섭해주기를 기도한다. 어떤 묘지는

가치를 일으키는 근원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사반(SAWAN)기간 동안 하나님 이로('KAI') 죽은 자의 영혼을 다시 세상에 돌아오도록 허용한다고 말한다. 돌아온 영혼을 위해 생존자들은 죽은 자에게 특별한 기도를 드리고 무덤을 정결하게 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1970년대 초 이래 술루 다도해는 대단한 정치적 불안이 겪어왔다. 연속적인 내란은 백성들로 하여금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타 지역으로 집단이동 재배치했다. 오늘날 무슬림들은 아직도 좌익 활동이 강하여 많은 살인, 납치, 그리고 필리핀군부와 정부를 차두고 있다. 이들의 그리스도 구원을 위해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호주 교과서에서 BC와 AD 사라질 전망

그리스도의 탄생 전후를 기준으로 하는 연대 표기 용어인 BC와 AD를 더 이상 교과서에서 사용하지 않겠다는 호주 교육 당국 결정이 현지 기독교인들과 보수주의자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시드니 데일리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호주 교육 당국은 모든 국가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BC(Before Christ)와 AD(Anno Domini) 대신 보다 종교적으로 중립적인 BCE(Before Common Era)와 CE(Common Era)로 대체한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현지 기독교인들과 전통주의자들은 "인류의 역사와 호주의 역사를 교과서에서 삭제하는 것과 같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피터 젠슨 시드니 대주교는 "많은 호주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은 날짜를 가리키는 데 있어서 여전히 변치 않는 기준으로 남아 있다. 용어를 바꾸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신 날인 크리스마스를 축제 시점으로 바꿔 부르는 것처럼 의미 없고 부조리한 일"이라고 말했다. 보수주의자들 역시 이같은 변화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야당인 자유-국민당 연합의 교육 대변인인 크리스토퍼 파인은 "오늘날의 호주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서구 문명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유대-기독교적 유산에 나라의 기반이 있기 때문"이라며, "BC와 AD의 삭제는 호주의 문화적 유산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사우스웨일스 의원인 프레드 나일리는 "새 교육과정은 방향은 우리의 역사에서 기독교가 해 온 역할에 대한 부정이자 기독교인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BCE와 CE라는 용어는 6세기경 만들어졌으나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가 20세기 후반 들어서부터 학문 서적에 널리 사용되며, 이후 세속주의자들에 의해서 BC와 AD를 대체할 용어로 선호 받아 왔다. 미국과 영미권 공립학교들 일부는 이미 공교육에서 종교성을 배제한다는 이유에서 이들 용어를 쓰고 있다.

세계적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페이스북(Facebook)에서의 활동을 조사해 공개하는 비공식 사이트 AllFacebook.com이 전세계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보인 상위 20개 사이트를 공개한 결과 1위가 기독교 단체 'Jesus Daily'인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 활동은 사이트에 글을 올리고 그에 대한 '친구들의 댓글과 같은 반응으로 평가된다. 페이스북 활동 순위에서 1위를 한 18주 동안 연속으로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기록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다. 페이스북 활동 상위 10위 안에는 Jesus Daily 외에도 기독교 단체 'The Bible'이 3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뜻의 스페인어 이름 'Dios Es Bueno'가 4위 그리고 'Jesus Christ'가 10위에 올라 있다.

전 세계 페이스북 활동순위 1위는 기독교 단체

8백만 명이 넘는(8,284,774명) 페이스북 '친구'를 갖고 있는 1위 Jesus Daily는 한 주 동안 3백만 건 이상(3,419,397명)의 활동을 기록했으며, 역시 8백만 명이 넘는(8,090,313명)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친구'로 선택한 3위 The Bible은 1백만 건 이상(1,044,350건)의 활동을 보였다. 4백만 명 이상(4,168,508명)의 '친구'가 있는 Dios Es Bueno에 이르는 활동이 이루어졌다. 3백만 명에 육박하는(2,937,587명) '친구'를 갖고 있는 Jesus Christ도 50만 건(513,040건)이 넘는 활동을 기록했다. 10위권 밖에는 150만 명(1,498,406명)의 '친구'가 있는 'Joyce Meyer Ministries'가 43만 건이 넘는(435,050건) 활동을 보이며 15위를 기록했다.

기독교 단체 또는 개인 외에 10위권 안에 드는 단체 또는 개인을 소개하면, 450만 명이 넘는(4,626,989명) '친구'와 1백만 건이 넘는(1,152,997명) 반응을 받은 인도네시아의 무슬림 인기 강연자 Mario Teguh의 페이스북 사이트가 2위에 올랐다. 인도네시아의 또 다른 인기 페이스북 사이트 Terima Kasih Ibu는 280만 명이 넘는(2,817,160명) '친구'를 갖고 있으며 55만 건이 넘는(557,633건) 활동을 보이며 9위에 이름을 올렸다. 10위권 안에 4개의 기독교 단체의 사이트가 있는

반면, 스포츠 단체 사이트도 3개나 올라 있다. 거의 2천만 명의 '친구'를 갖고 있는(19,347,689명) 축구팀 FC Barcelona(바르셀로나)의 페이스북 사이트는 73만 건에 이르는(728,335건) 반응이 올라와 5위에 올랐고, 바르셀로나와 같은 프로 축구팀이며 1,800만 명이 넘는(18,619,269명) '친구'를 보유한 Real Madrid C.F.(레알 마드리드)의 페이스북 사이트도 716,961건의 활동을 보이며 6위 자리에 올랐다. 영국의 유명한 축구팀 'Manchester United(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1,800만 명이 넘는(18,404,548) '친구' 관계를 맺으며 668,140건의 반응을 받아 7위를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페이스북 활동 최상위 10개 사이트들 중에서 가장 많은 '친구'(35,136,420명)를 갖고 있는 캐나다 출신 미국의 인기 가수 Justin Bieber(저스틴 비버)의 페이스북 사이트는 63만 건이 넘는(630,789건) 반응을 받으며 8위에 올랐다.

미국 교회들, 생존 아닌 '선교를 위해' 합병

미국 교회들 사이에서 흔히 이뤄져 온 합병의 목적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쇠퇴해가는 교회들이 '생존'을 위해 합병을 선택했다면, 최근에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이 더 큰 '선교'의 기회를 위해 서로 합병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크리스챤리더십네트워크(Leadership Network)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는 '선교적 교회 합병(missional church merger)'이 미국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트렌드가 되고 있다며, 지난 한 해 동안 전체의 2%에 달하는 교회들이 이같은 이유에서 합병했으며, 2013년경에는 그 비율이 5%가 될 것으로 보고한다고 밝혔다.

한 예로, 지난 해 피닉스의 이스트 밸리 바이블 처치(East Valley Bible Church)와 프락시스 처치(Praxis Church)는 각각 시에서 유명한 메가처치와 한창 성장 중인 떠오르는 교회였지만, 피닉스 시를 더욱 효율적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서로 합치는데 동의했다. 이렇게 탄생한 리뎀션 처치(Redemption Church)는 올해 초에는 세번째 교회까지 그들의 파트너 받아들이면서 더욱 성장해 총 4개의 캠퍼스에 출석교인 수가 4,800여명이 됐다. 이는 세 교회가 합병하기 전보다 14% 이상 증가한 것이다.

대표 목사인 저스틴 앤더슨 목사는 "우리는 예배 소교회나 빌립교회처럼 하나의 도시 교회를 갖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며 피닉스의 교회들이 교회개척을 위해 함께 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기대감에서 시작된 일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쇠퇴해가는 교회들이 존속을 위해 합병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후에도 쇠퇴를 지속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선교를 위해 합병한 교회들은 합병 전보다 더 크게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새로운 병합의 공식은 '1+1=10', 즉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다.

또한 이같은 합병은 선교를 위해서라면 교회의 규모나 교단, 민족성과 관계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 해 말 미수리의 한 아프리카-아메리칸 교회는 한 백인교회와 합병했다. 백인교회의 이름을 그대로 쓴다는데 동의도 이뤄졌다. 현재까지는 선교적 합병은 주로 멀티사이트 교회들 간에 더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 오늘날 미국 교회의 20%에 달하는 멀티사이트 교회들 대부분은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이다. 다시 말해 선교를 위한 합병은 건강하게 성장 중인 교회들 사이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는 뜻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새로운 트렌드가 점차 교회 80%에 해당하는 교세 전체나 감소를 겪고 있는 교회들에게까지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한다고 전망했다. 한편 선교적 합병에는 이외에도 정체성의 확대, 신뢰성 증대, 재정적 효율성 강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합병하려는 교회들 간의 차이 극복이라는 도전도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앤 그레함 롯츠, 9.11이 미국민에게 준 의미 밝혀

빌리 그레함 목사의 딸이자 미국의 영향력 있는 복음전도자인 앤 그레함 롯츠(Anne Graham Lotz)가 "9.11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분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는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최근 자신의 저서인 '예수 보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각성(Expecting to See Jesus: A Wake-Up Call for God's People)'와 관련해 가진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롯츠는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책에서 롯츠는 9.11을 통해 자신이 깨달은 바에서 출발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미국민들은 물론 기독교인 모두가 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안내

낙안장로교회 담임목사: 홍영진 주일 1부예배: 오전 8:45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평일 3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목회기도회: 오후 8:00 안락교회: 오후 8:45 Tel: (718) 437-7781, Fax: (718) 437-8831 47-20 Queens Blvd., Flushing, NY 11354 www.nakanchurch.org	뉴욕갯세마대교회 담임목사: 이계용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2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30 목회기도회: 오후 8:30 목회기도회: 오후 9:00 Tel: (718) 669-0261, (718) 669-0262, (718) 669-0263 45-75 Flushing Blvd., Flushing, NY 11355 www.gospelmission.org	뉴욕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2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30 목회기도회: 오후 8:30 목회기도회: 오후 9:00 목회기도회: 오후 9:45 Tel: (718) 669-0192, Fax: (718) 669-0233 40-04 Skillman Ave., Bayside, NY 11364 www.nyevangelical.org	뉴욕빌렘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혁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2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30 목회기도회: 오후 8:30 목회기도회: 오후 9:00 목회기도회: 오후 9:45 Tel: (718) 669-0177, Fax: (718) 669-1867 2 Buelock Hill Road, Fort Washington, NY 11800	뉴욕사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30 목회기도회: 오후 8:30 목회기도회: 오후 9:00 목회기도회: 오후 9:45 Tel: (718) 437-3810, Fax: (718) 437-3811 48-04 14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순복음안도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30 목회기도회: 오후 8:30 목회기도회: 오후 9:00 목회기도회: 오후 9:45 Tel: (718) 437-7838 / CP: (718) 638-7777 48-04 142 St., Flushing, NY 11358 www.nyevangelical.org	뉴욕 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30 목회기도회: 오후 8:30 목회기도회: 오후 9:00 목회기도회: 오후 9:45 Tel: (718) 669-0208, Fax: (718) 669-0232 267-02 47th Ave., Woodside, NY 11377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목회기도회: 오후 8:00 목회기도회: 오후 8:45 Tel: (718) 628-3371, Fax: (718) 627-6278 71-07 Roosevelt Ave., Jackson Heights, NY 11372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문석호 원로목사: 방지락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8:30 3부예배: 오전 10:15 4부예배: 오전 1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8:30 목회기도회: 오후 8:30 목회기도회: 오후 9:00 목회기도회: 오후 9:45 목회기도회: 오후 10:30 목회기도회: 오후 11:00 Tel: (718) 762-3736, Fax: (718) 762-3177 42-13 130th St., Flushing, NY 1135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2:00 주일 3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30 목회기도회: 오후 8:30 목회기도회: 오후 9:00 목회기도회: 오후 9:45 Tel: (201) 342-6184, Fax: (201) 943-0264 445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범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30 목회기도회: 오후 8:30 목회기도회: 오후 9:00 목회기도회: 오후 9:45 Tel: (718) 669-0177, Fax: (718) 669-3621 20-07 104 St., Flushing, NY 11368	봉이일렌드성경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2:3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30 목회기도회: 오후 8:30 목회기도회: 오후 9:00 목회기도회: 오후 9:45 Tel: (212) 233-7757 / Fax: (212) 233-7758 230 Elmont Ave., Westbury, NY 11590	순복음 뉴욕교회 담임목사: 김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7부예배)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30 목회기도회: 오후 8:30 목회기도회: 오후 9:00 목회기도회: 오후 9:45 Tel: (718) 627-7800, Fax: (718) 627-8284 150-35 34 Ave., Flushing, NY 11354	어린양 교회 담임목사: 김수택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30 목회기도회: 오후 8:30 목회기도회: 오후 9:00 목회기도회: 오후 9:45 Tel: (718) 669-0208, Fax: (718) 669-0232 89-37 47th Ave., Woodside, NY 11377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전 12: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30 목회기도회: 오후 8:30 목회기도회: 오후 9:00 목회기도회: 오후 9:45 Tel: (718) 767-8888, Fax: (718) 767-8888 70 Flushing Rd., Manhattan, NY 11350	주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동익 주일 1부예배: 오전 12:00 주일 2부예배: 오전 2:00 주일 3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30 목회기도회: 오후 8:30 목회기도회: 오후 9:00 목회기도회: 오후 9:45 Tel: (718) 627-7800, Fax: (718) 627-7800 168-12 73rd Street, Woodside, NY 11378	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원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2:00 주일 3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30 목회기도회: 오후 8:30 목회기도회: 오후 9:00 목회기도회: 오후 9:45 Tel: (201) 943-0264, Fax: (201) 943-0264 445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	핀즈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영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30 목회기도회: 오후 8:30 목회기도회: 오후 9:00 목회기도회: 오후 9:45 Tel: (718) 669-0264, Fax: (718) 669-7788 543-17 Flushing Ave., Flushing, NY 11355 www.kjcc.org	핀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철 주일예배: 오전 8:00(1부)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30 목회기도회: 오후 8:30 목회기도회: 오후 9:00 목회기도회: 오후 9:45 Tel: 718-472-1180 88-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guinnessok.org	한미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아름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2:30 주일 3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30 목회기도회: 오후 8:30 목회기도회: 오후 9:00 목회기도회: 오후 9:45 Tel: (914) 277-1103, Fax: (914) 277-0202 79 School St., Goshen, NY 13842 www.hanmichurch.org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합 후원교회들 찾습니다 L.A.: Tel: (323) 686-0009 Fax: (323) 686-0048 N.Y.: Tel: (718) 669-0208 Fax: (718) 669-0232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남미지역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허경남 주일예배: 오전 11:00 목회기도회: 오후 8:30 목회기도회: 오후 9:00 목회기도회: 오후 9:45 Tel: (517) 1485, Fax: (517) 1485 Box Avenue, Box, Central A, Park City 0229-019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30 목회기도회: 오후 8:30 목회기도회: 오후 9:00 목회기도회: 오후 9:45 Tel: (011-55-11-2070-8233, 8277-3141 R. Lúcio Alves N. Liberdade CP 01061-010	브라질 새생명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30 목회기도회: 오후 8:30 목회기도회: 오후 9:00 목회기도회: 오후 9:45 Tel: (511) 669-0264, Fax: (511) 669-7788 Box Avenue, Box, Central A, Park City 0229-019	아르헨티나 재민교회 담임목사: 최정원 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2:30 주일 3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30 목회기도회: 오후 8:30 목회기도회: 오후 9:00 목회기도회: 오후 9:45 Tel: (54) 114-63-1782 Av. Sábila 1714, 1605-1105 CAP.FED., B.B.A.A.,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홍기상 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2:30 주일 3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30 목회기도회: 오후 8:30 목회기도회: 오후 9:00 목회기도회: 오후 9:45 Tel: (56) 21-27-1103, Fax: (56) 21-27-1103 Santiago, Chile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권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30 목회기도회: 오후 8:30 목회기도회: 오후 9:00 목회기도회: 오후 9:45 Tel: (596) 271-374-8883 E-mail: hankim@paraguay.org Carvertono RD. 1001, Asuncion-PARAGUAY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49.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6) : DNA에서 단백질로-정보가 실물로

조그마한 가구나 아이들 장난감이나 운동기구 같은 것을 사면 꼭 해야 하는 귀찮은 일이 한 가지 있다. 설명서를 보고 부품들을 조립하는 일이다. 그런데 종종 부품 이름들이나 지침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설명서를 따라 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대충 내 생각대로 했다가는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들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활동 중에 정보가 실물로 되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포 속에서도 그와 아주 유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간세포에 인슐린이 붙어 그 신호가 세포 중앙의 핵 속에 전달되면 복잡하고 신기한 과정을 거쳐 혈액 중의 당을 세포 안으로 더욱 많이 끌어들이는 단백질을 만드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DNA)들이 복사되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 DNA 정보는 일단 없으면 다시 회복할 수 없으므로 평상시에는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 마치 이 세상이 단 한 부 밖에 없는 고문서를 국립도서관에 소중하게 보관하고 아무에게나 열람시켜 주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일단 정보가 필요하면 이중 나선 구조의 안정한 DNA는 순간적으로 열려 단선 구조의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이 상태에서만 비로소 정보 복사가 허용되고 다시 곧바로 안정한 이중 나선의 DNA 상태로 되돌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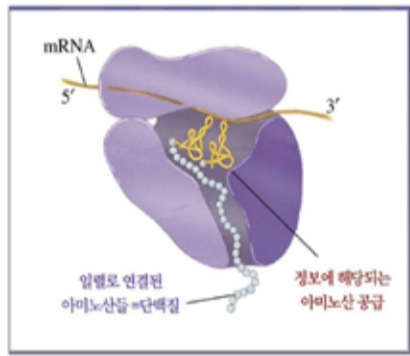
이 과정은 약 1m 길이의 DNA에서 마치 바늘 끝 한 점보다 작은 일부에 해당하는 정보를 찾아서 복사하는 것이다. 마치 대형 도서관의 수많은 책들 중에서 지체 없이 원하는 책 한 권을 고르고 그 책에서 꼭 필요한 페이지를 즉각 열어 필요한 한 문장만 베껴내는 것과 같다. 이런 일들이 세포의 핵에서 수시로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세포가 이 정보의 위치를 어떻게 찾아내는지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이렇게 복사된 정보를 과학자들은 mRNA라고 부르는데 m은 messenger란 뜻이다. 또, RNA는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진 DNA와 거의 똑같은 화학구조를 가진 한 가닥으로만 된 DNA의 복사본이다. 그런데 이 복사된 mRNA 정보는

전체 DNA 정보(게놈)에 비하면 거의 무시할 만큼 작은 분량인데 그 이유는 유전자(책)의 문장에 해당하는 정보 한 개 분량의 정보만 복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복사된 mRNA 정보는, 마치 아빠(messenger)가 도서관에 가서 딸이 필요한 정보를 찾아 수첩에 적어 도서관 문을 통해 나오듯이 밖으로 나온다.

DNA가 보관되어 있는 핵은 이중막으로 싸여 있는데 그 막 중간 중간에 출입문(핵공)이 있다. 이 핵공을 통해 정보가 핵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핵 밖으로 나오기도 한다. 이 핵 바깥쪽을 세

하나님 형상 이해 못하면 과학자 발견은 신기한 일에 그쳐 DNA RNA 단백질 한 조각을 성경 통해 볼 수 있어야



DNA 정보가 실물이 되는 리보솜
DNA나 mRNA는 단백질의 성분인 아미노산과 전혀 상관 없다. 그 상관성은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다.

포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핵 속에서 복사한 그 정보를 가지고 정보가 지시하는 실물인 단백질을 조립하게 된다. 이 때 사용되는 생체 기계를 리보솜(Ribosome)이라고 부른다.

세포의 구성은 마치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상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데,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아주 흡사한 점이 있다. 마치 구형 컴퓨터에서 펀치된 카드가 카드 리더(Reader)를 지나면 그 속에 있는 정보가 글자로 인쇄되어 나오듯이, 암호로 되어 있는 mRNA 가닥이 이 리보솜을 지날 때 드디어 DNA에 들어있던 정보가 최종 산물인 단백질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펀치된 카드의 구멍과 컴퓨터에서 인

쇄되어 나온 글자들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사실 그 구멍과 글자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 그 카드의 정해진 구역 밖에 똑 같은 모양과 수의 구멍을 뚫으면 아무 글자도 인쇄되지 않는 데 그 이유는 사람이 구멍 위치와 글자의 상관관계를 미리 정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와 아주 유사한 일이 mRNA 정보가 단백질로 현실화 되어 나타나는 리보솜에서 일어나게 된다.

펀치 카드의 구멍과 글자가 상관이 없듯이 mRNA는 단백질의 구성 성분인 아미노산과 화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다. DNA의 알파벳이 4종류(A, T, C, G)가 있듯이 mRNA의 알파벳(A, U, C, G)도 4종류가 있어 DNA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일렬로 연결되어 있다.

단백질도 DNA나 mRNA 정보가 일렬로 되어 있는 것처럼 20가지의 서로 다른 아미노산이 그 DNA나 mRNA 정보에 맞추어 일렬로 연결되어 있는 물질이다. 이 때 카드 리더에서와 마찬가지로 mRNA는 아미노산과 직접 접촉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mRNA라는 화학물질 정보와 20종류의 아미노산의 연관성은 리보솜에서 우연히 생겨나게 되었을까?

도서관과 아주 유사한 생명체의 DNA 정보 체계 그리고 그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까지 마치 컴퓨터 시스템이 운용되듯이 짜여 있는 리보솜 등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하나님과 하나님 형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과학자들의 발견들은 그저 놀랍고 신기한 일들로 그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게 될 때,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의 형상인 과학자들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지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성경의 주장대로(롬1:20),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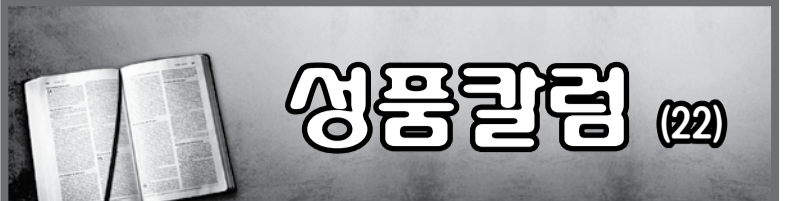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그 창조주와 창조주의 말씀인 성경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동물들 중에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요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캘리포니아 SB48 법률 폐지 운동'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인식과 직결된 문제들 중에 하나다. 동물들이 동성끼리 모여 살기 때문에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진화론적인 학자들이 동성결혼을 옹호하고 있다. 절대 진리를 상실한 포스트모더니즘과, 나에게 의미 있으면 그만이라는 실존주의 철학 사조 속에 만연한 진화론은 동성결혼과 관련 된 법률안들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다. 어떻게 이런 죄에서 미국이 돌아설 수 있을까?

성경은 마음의 생각이 사람의 행동을 결정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다(잠언 23:7). 문제의 근본은 사람들의 마음인데 그 마음들이 성경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마음이 성경에서 떠난 이유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 이유들을 찾지 못하면 근본적인 치유책은 마련될 수 없다 또, 반 성경적인 이슈들이 생길 때마다 엄청난 수고와 자원이 소비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100%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보장도 없다.)

한 조사 결과는 그것이 과학의 문제였다고 지적하고 있다(Already Gone: Why your kids will quit church and what you can do to stop it, 2009, Master Books). DNA 한 조각, RNA 한 조각, 그리고 단백질 한 조각을 진리의 책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성공칼럼 (22)



이영숙 박사
(총이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아동기 자녀에게 들려줘야 할 부모의 말 한마디

아이들은 가정에서 가장 귀중한 교훈을 익힙니다. 특히 부모가 들려주는 말이나 보여주는 행동 하나하나가 자녀의 자존감을 키워주지요. 아이는 부모의 말과 행동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자존감은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한 자아인식, 자신감, 소속감 등으로 발전하며 세상을 이기는 지도자로 성장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시기, 우리 아이가 무난하게 잘 자라려면 어떤 말을 들려주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아동기는 발달단계에 비춰볼 때 '성실성'을 배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규칙 지키기, 약속 지키기, 해야 할 학습을 성실히 수행하기, 자신의 일을 책임감 있게 완수하기 등 성실성과 책임감의 성품을 훈련하는 일은 이 시기의 자녀들에게 주목하며 들려주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부모의 말투를 바꾸세요. 자녀에게 강요하지 말고 부모가 먼저 친절하고 따뜻하게 또 진실하고 자상하고 관대하게 말하고 행동하세요.

둘째, 잔소리는 노(No)!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햇빛이 비치는 쪽으로 향하는 화초들을 봅니다. 자녀들에게도 칭찬과 격려가 햇빛 같아서 그렇게 성장합니다. "우리 아들, 꼼꼼하기도 하지!" "우리 딸 오늘 보니 더 예뻐졌는데!" 그러면 더 꼼꼼한 아들, 더 예쁜 딸로 자랄 테지요.

셋째, 강요보다 동기유발을 할 수 있도록 미화하세요. "해라!" "하지 마!" "했지?" 이런 말보다 "이렇게 한 것이 너의 최선을 다한 것이니?" "네가 정말 디자이너가 되고 싶으면 지금 무엇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네가 다음 시험을 잘 보고 싶으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 라고 말을 바꾸어 보세요.

넷째, 부부의 화목이 우선입니다. 부부가 서로 존경하면 자녀 역시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 무시하면 자녀도 부모를 무시하게 되지요. 화목한 부부, 편하게 대화하는 부부의 모습이 아이들로부터 대화하도록 유도하며 서로 화목하도록 이끌어줍니다.

다섯째, 일관성 있게 말하세요. 한 번 안 된다고 한 것은 끝까지 안 된다고 해야 합니다. 아이가 때를 쓰거나 반항하거나 혹은 집을 나간다고 소리를 지르더라도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가 아무 이유없이 학교에 안 가고 무단결석을 하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야. 엄마와 아빠는 네가 책임감 있게 학교 생활을 하기를 원해"라고 명쾌하게 알려주세요.

여섯째, 성취보다 성품을 칭찬하세요. 자녀의 성실성을 칭찬해 주세요. 이 시기의 자녀가 배워야 할 가장 큰 과업은 성실성입니다. 성적이 우수할 때 칭찬해주기보다 점수가 안 나왔을 때 격려해 주세요. "아빠는 네가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안단다. 네가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면, 성실하게 네 일을 열심히 한 것만으로도 아빠는 기뻐."

부모님에게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동기 자녀는 자신에 대한 귀중한 가치를 깨닫고 이 세상을 향해 자신의 숨은 재능을 가감 없이 쏟아내는 값비싼 보배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결코 싸구려 취급하지 마세요.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안내

<p>김포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일 예배: 오전 7:00 수신 예배: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4:00</p>	<p>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성삼 주일 예배: 오전 8:30 수일 예배: 오전 11:00 수신 예배: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4:00</p>	<p>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유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일 예배: 오전 7:00 새벽기도회: 오전 7:00</p>	<p>풍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예배: 오전 8:30 수일 예배: 오전 7:30 수신 예배: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8:00</p>	<p>벅스카운타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봉운 주일 예배: 오전 8:00(한국) 수일 예배: 오전 7:30(미국) 수신 예배: 오전 7:30(미국) 새벽기도회: 오전 8:00</p>	<p>맨얼교회 담임목사: 진용태 주일 예배: 오전 7:00 수일 예배: 오전 8:15 수신 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4:45 EM 예배: 오전 10:30 수신 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3:00(월-토)</p>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권택영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일 예배: 오전 11:00 수신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8:00</p>
<p>볼티모어 교회 담임목사: 이영철 주일 예배: 오전 8:30 수일 예배: 오전 10:30 수신 예배: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12:50</p>	<p>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호 주일 예배: 오전 8:30 수일 예배: 오전 10:00(영국) 수신 예배: 오전 11:30 수일 예배: 오전 7:30</p>	<p>사예로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예배: 오전 10:00 수일 예배: 오전 11:15 수신 예배: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30</p>	<p>알칸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권남수 주일 예배: 오전 11:30 수일 예배: 오전 4:00 수신 예배: 오전 7:30 수신 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8:00 (월-토)</p>	<p>앵커리지델린교회 담임목사: 유계일 주일 예배: 오전 10:00 수일 예배: 오전 11:00 수신 예배: 오전 11:00 수신 예배: 오전 2:00 수신 예배: 오후 7:00</p>	<p>엘파소델린교회 담임목사: 하대수 주일 예배: 오전 8:00(영국) 수일 예배: 오전 11:00 수신 예배: 오전 7:30</p>	<p>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윤권 주일 예배: 오전 7:30 수일 예배: 오전 8:30 수신 예배: 오전 11:30 수일 예배: 오전 8:30 수신 예배: 오전 8:30 새벽기도회: 오전 8:00</p>
<p>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일 예배: 오전 7:00 새벽기도회: 오전 8:30</p>	<p>워싱턴아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현세영 주일 예배: 오전 8:00 수일 예배: 오전 11:00 수신 예배: 오전 11:30(월-토) 수신 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8:30(월-토)</p>	<p>주 예수 교회 담임목사: 배현환 주일 예배: 오전 8:30 수일 예배: 오전 8:30 수신 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8:00</p>	<p>큰문리교회 담임목사: 나봉삼 주일 예배: 오전 8:00 수일 예배: 오전 11:00 수신 예배: 오전 11:30 수신 예배: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8:30 새벽기도회: 오전 8:30</p>	<p>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재근 주일 예배: 오전 8:30 수일 예배: 오전 11:00 수신 예배: 오전 11:00 수신 예배: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8:00(월-토)</p>	<p>타코마 새생명교회 담임목사: 김규영 주일 예배: 오전 8:00 수일 예배: 오전 8:30 수신 예배: 오전 11:00 수신 예배: 오전 11:30(월-토) 주일 예배: 오전 2:00(월-토)</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영 1차 예배: 오전 8:30 2차 예배: 오전 8:30 수일 예배: 오전 11:00 수신 예배: 오전 7:00 새벽기도회: 오전 8:00(월-토)</p>
<p>템피장로교회 담임목사: 윤경용 주일 예배: 오전 8:30 수일 예배: 오전 8:30(월-토) 수신 예배: 오전 10:50 수일 예배: 오전 12:10 수신 예배: 오전 7: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8:00(토)</p>	<h2 style="margin: 0;">하와이지역</h2>		<p>아가페신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예배: 오전 8:00 수일 예배: 오전 11:30 수신 예배: 오전 11:30 수신 예배: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8:30 새벽기도회: 오전 8:30 (월-토)</p>	<p>에덴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정현 주일 예배: 오전 8:00 수일 예배: 오전 11:00 수신 예배: 오전 11:00 수신 예배: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8:00(월-토)</p>	<p>하와이 한국교회 담임목사: 김순환 주일 예배: 오전 8:00 수일 예배: 오전 8:30 수신 예배: 오전 11:30 수신 예배: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8:00(월-토)</p>	<p>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원규 주일 예배: 오전 8:00 수일 예배: 오전 8:30 수신 예배: 오전 11:30(월-토) 수일 예배: 오전 7:00 수신 예배: 오전 7:00 새벽기도회: 오전 8:00</p>

Call2all LA 국제전략회의... 전 세계에 복음을

11월 29일-12월 3일 롱비치 컨벤션센터

세계 선교단체 리더들이 모이는 'Call2all LA 국제전략회의'(LA Global Congress)가 오는 11월 29일(화)부터 12월 3일(토)까지 5일간 롱비치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대회를 맡은 마크 앤더슨 선교사(Call2all·Global Pastors Network 대표)는 9일 북음방송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훈련과 네트워킹을 위주로 진행되는 국제 전략회의는 지난 3년간 미전도 종족선교, 중보기도운동, 교회개혁, 전도 등을 가

속화하는 결실을 거둔 것으로 입증됐다"면서 "이 행사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앤더슨 선교사는 "세계 인구의 약 10%에 달하는 사람들이 자국어 성경이 없는 등의 이유로 지난 2000년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다"며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리는 이 전략회의에 한인들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

Call2all은 CCC 창립자 고 빌 브라이트 박사가 2003년 '전 세계에 500만 개 교회를 개척해 10억 명을 구원하자'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구체화된 운동으로 지금까지 세계 각 지역에서 15차례 전략회의를 개최했으며 약 100개국 2만8천여 리더들이 동참하고 있다.

이번 전략회의에는 로렌 커닝햄, 라인하르트 본케, 신디 제이콥스, 스티브 더글라스, 루 잉글, 존 도우슨, 폴 에셀먼, 데이비 해밀턴, 드웨인 로



Call2all LA 국제전략회의 기자회견에 대하여 마크앤더슨 선교사가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환 남가주선교단체협의회 회장, 양태철 은혜한인교회 선교담당 목사, 마크 앤더슨 대회장, 서민정 Call2all 간사

버츠 등 80여 기독교 리더들이 참여해 어떻게 하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그리스도의 대 사명을 성취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이번 회의의 참여대상자는 가정, 교회, 교육, 정부, 미디어, 과학 기술, 스포츠, 예술, 비즈니스 등 사회의 각 분야의 리더 혹은 리더로 세 위치를 받고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웹사이트 등록 시 자신의 분야를 표시하게 된다.

소명을 확인하고 세계 선교에 구체적으로 헌신하게 된다.

특히 대회 중 3일간 하루 두 차례 갖는 한인들을 위한 워크숍은 전도 및 교회개혁, 시민사회 및 정부, 금융 및 정의 사역, 비즈니스, 미디어 및 예술, 가정 및 기도 사역 등 6개 분야

에 걸쳐 진행되며, 마지막 날에는 워크숍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1세와 2세들이 한 자리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김정환 남가주한인선교단체협의회 회장은 "이 운동은 주류 교계가 주도해 시작했지만 한인 등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 되어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선교사나 목회자들이 아니라 평신도 및 전문인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 전략회의의 특징이며 이번 회의를 통해 현재의 선교동향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등록비는 개인 159달러, 커플 260달러이나 11명 이상 단체는 할인혜택(100달러)을 받으며 온라인(www.call2all.org)등록도 받는다.

자세한 문의는 (408)314-3887, (714)553-5800, (714)350-6957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콜롬비아 결연아동 후원행사 준비위원들.

콜롬비아 결연아동 후원 "Sharing Love"

27-29일, 이성순 화백과 함께 하는 종합예술쇼

미동부기아대책(회장 황영진 목사)과 미주세계나눔선교회가 공동 주최하는 콜롬비아 결연아동 후원 "Sharing Love"가 오는 27일(화)부터 29일(목)까지 사흘간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린다. 주최 측은 지난 7일 플러싱 뉴옥전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사내용을 알렸다.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2시간 거리의 아구아다 지역의 빈민층 어린이들을 위한 선교센터(교회) 건립을 위한 후원 모금행사인 이 "Sharing Love"는 화가이며 목사이자 이성순 화백과 함께 하는 종합예술

쇼의 성격을 띠고 있다.

즉 음악연주와 함께 즉석에서 그림을 그리는 즉석시연이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하루 2차례씩 열린다. 또 마지막 날인 29일(목)에는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리셉션과 아울러 아트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이 퍼포먼스에는 자현 이성순 화백과 피터 하워드(첼로), 휘 왕(바이올린), 데이비 패터슨(플룻), 유상열 목사(피아노), 조복만(드럼), 박영 Ch, 송기택(테너), 에리카문(소프라노), 필그림선교무용팀, 조예선교무

용팀, 세브레브, 잉댄스&키츠, 뉴욕 여성중창단 등이 출연한다.

이번 행사 총책임 배영란 권사는 "뉴욕과 뉴저지의 미술인협회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성순 화백은 이번 뉴욕행사를 계기로 목회를 접고 미술선교에만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 권사는 "4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될 이번 행사는 단순한 전시회가 아니라 문화공연 스타일로 워십이나 찬양 등 공연 중에 즉각 시연을 하는 것이 특이한 점"이라고 강조하고 "이 화백의 작품 컨셉이 '사랑의 노래'로 예수님의 사랑나눔에 여러 단체가 협력하게 됨을 감사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고아와 장애인 선교를 20년간 해오고 있는 이성순 화백은 동양화에 서양화 기법을 사용하는 작품스타일을 갖고 있다. 기아대책은 이번 행사로 3만 달러 정도의 수익금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콜롬비아 아동센터는 지난해 미동부기아대책이 후원한 5천 달러로 대지를 마련하고 이번 후원행사를 통해 마련된 기금으로 내년 초까지 건물을 완공할 예정이다. (유원정 기자)

또한 이번 회의의 참여대상자는 가정, 교회, 교육, 정부, 미디어, 과학 기술, 스포츠, 예술, 비즈니스 등 사회의 각 분야의 리더 혹은 리더로 세 위치를 받고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웹사이트 등록 시 자신의 분야를 표시하게 된다.

참석자들은 분야별로 열리는 오전 원탁토론 시간을 통해 이들과 같이 있게 대화하는 기회도 갖게 되며 오후 워크숍 이후에 열리는 저녁집회를 통해 주요 발표자들의 스피치를 듣는다. 또 목요일과 금요일 밤에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찬양과 경배'를 갖고 마지막 순서에서는 자신의

OC목사회, SB48법안저지 원본서류 지급

오렌지카운티(OC)한인목사회(회장 손태정 목사)는 SB48 법안저지에 따른 서류작성과 원본 서류 등을 지급하며 한인들이 이 법안저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각 지역별 도우미는 다음과 같다.

▲세리토스, 놀워, 벨 플라워 인근지역: 손태정 목사(회장), (562)896-0691 ▲부에나 파 싸이프러스 인근지역: 장철호 목사(회장), (714)474-9007 ▲가든글로브, 싸이프러스 인근지역: 이현성 목사(부회장), (714)788-9819 ▲플러튼, 다이아몬드 바 인근지역: 김홍권 목사(총무), (714)353-9255

SB48 법안저지 서명운동 적극참여

OC교협 제8차 임원회, 올 총회는 11월에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OC교협, 회장 박용덕 목사) 2011년 8차 임원회가 6일 오전 10시 30분 삼성장로교회(담임 신원규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임원회는 1부 예배, 2부 회의로 이뤄졌으며 1부 예배는 사회 이호우 목사, 기도 김동석 장로, 설교 신원규 목사, 축도 이종은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2부 회의는 박용덕 목사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보고된 7, 8월 행사는 7월 14일에 열린 베리칩 포럼과 교계에 베리칩에 대한 성명서 발표, 8월 14일에 열린 오렌지카운티 평통과의 연합 조찬기도회, 8월 29일 동성애저지 법안을 반대하는 STOP SB48에 대한 여러 기독교 단체와의 공동 기자회견, 9월 2일에 SB48반대 서명을 위한 설명회 등이 있었다.

또 주요 안건으로는 △주류 사회 속에서의 한인교회의 역할에 대한 설명회와 △SB48 법안 저지 서명운동에 임원들이 소속한 교회는 물론 오렌지카운티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과 △2011년 11월 11일에 있을 11.11.11 국가를 위한 기도 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금년 총회는 12월에서 11월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하고 다음 임원회는 9월 29일 야외에서 갖기로 결정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노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KAPC뉴욕노회 제 69회 정기노회

10월 25-26일 목사부부수련회 개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강기봉 목사) 뉴욕노회(노회장 이원호 목사) 제 69회 정기노회가 지난 13일 부르크린제일교회(담

임 박상훈 목사)에서 열렸다. 회무에 앞서 열린 개회예배는 부노회장 조문선 목사 인도로 기도 김해근 목사, 성경봉독 김병용 목사, 설

교 이원호 목사("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주시는 교훈", 갈6:1-5), 성찬 예식, 축도 장영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서기 황경일 목사의 광고 후 회무처리에 들어갔으며 서기보고, 헌의청원 문서보고, 각부보고, 각시찰보고, 회계보고, 선교사역보고, 신안건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노회가입을 청원한 이준성 목사(양무리교회)와 갈릴리교회 박해창 목사가 노회가입이 허락됐다. 동 노회는 30교회 50명의 목사회원이 소속돼 있으며 이날 목사회원 30명 장로회원 4명이 참석했다.

동 노회는 30교회 50명의 목사회원이 소속돼 있으며 이날 목사회원 30명 장로회원 4명이 참석했다.

한편 동 노회는 오는 10월 25일과 26일 목사부부수련회를 갖기로 결의했으며 장소는 포코노 하워드존슨 호텔. 강사는 장영춘 목사이다. (유원정 기자)

예장(대신) 미주총회 총회장 김세창 목사

8일 정기총회, 부총회장 이지철 목사 선임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미주총회가 8일 플러튼 하베스트교회에서 열렸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자"는 주제로 열린 총회는 총회장 등 임원을 선출하고 선언문을 결의했다.

대한신학교 창설자인 김치선 박사의 정통 신학을 바탕으로 하는 본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들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김세창 목사 △부총회장 겸 총장직무대행자 이지철 목사 △경경총

회장이외의 목사 △부총회장 앤드류리 목사 △여성부총회장 에스더신 목사 △총무 김정국 장로 △서기 골디김 선교사 △회계 김병숙 목사

한편 각 노회 노회장은 다음과 같다.

△중양노회 김세창 목사 △가주노회 강정진 목사 △서부노회 홍성화 목사 △북부노회 김정태 목사 △남부노회 에스더신 목사 △캐나다노회 이승남 목사.

교회 수양관 미션비전센터에서 하계수련회를 가졌다.

금번 수련회에서는 말씀 잔치를 통해 영적 성숙을 이루고 자아발견과 자기성찰의 시간을 가졌으며 전교인 옥외 체육활동으로 릴레이, 오제미 던지기, 물 풍성게임, 저녁 바비큐와 라인댄스 등을 통해 서로가 하나 되는 즐거운 친교시간을 가졌다.

한편 싸우스베이한인교회(안대진 목사)는 자녀들의 한글교육과 직업교육을 위한 South Bay Korean Christian School(주정부 등록)을 오픈해 봉사하고 있다.

한국학교는 한인 2세 어린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침으로 한국인의 자긍심을 키우고 뿌리를 잊지 않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놀이와 다양한 학습방법으로 한글을 더욱 재미있고 쉽게 가르친다. 또한 읽기, 쓰기, 창의력의 단계로 각 학급마다 어린이에게 알맞은 교육과정을 통해 한글지식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켜 나간다고.

한국학교나 직업학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www.sbkkc.com sbkkc@hotmail.com 또는 (310)372-4751로 하면 된다. (정리: 이성자 기자)



KPCA서남노회 제45회 정기노회에서 김정찬 노회장이 설교하고 있다

KPCA 서남노회 제45회 정기노회

황천영 공로목사 추대 및 목사임직 4명

해외한인장로회 서남노회(KPCA 노회장 김정찬 목사) 제45회 정기노회가 12일과 13일 양일간 오렌지카운티 영락교회(담임 김경섭 목사)에서 개최했다.

첫날 김정찬 노회장의 사회로 시

작된 개회예배는 전총권 장로의 기도, 오렌지카운티영락교회 성가대의 찬양이 있었으며 김정찬 목사가 '네 신을 벗으라'(출3:1-5)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김 목사는 "깃발하고 업신여김 당

하고 포기하고 싶은 자리에 가게 될 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지만 우리 각자의 부끄러운 과거는 청산돼야 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시대 하나님의 거룩을 교회가 보여줘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복된 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교에 이어 김경섭 목사의 집례로 성찬식이 있었으며 이경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또한 둘째 날엔 황천영 다우니제 일교회 원로목사의 공로목사 추대와 목사임직식을 가졌는데 일반인 열린교회 평공준 전도사를 비롯한 4명의 전도사도 목사안수를 받았다.

한편 이번 노회에는 미주성신대학교 M.Div 과정의 '교회정치'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참관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박준호 기자)



수련회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했다

싸우스베이한인교회 하계수련회 성료

한글학교, 방과후학교, 직업학교 오픈

싸우스베이한인교회(담임 안대진 목사)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마28:19)는 주제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Lucerne Valley에 있는 본

관 축제분위기로 진행됐다. (박준호 기자)

The PPFF 수퍼콘서트 성료

PPFF 수퍼콘서트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10일 저녁 7시30분에 열렸다. 본 교회 한기홍 목사의 환영 메시지를 영상으로 소개하며 시작된 이번 콘서트는 그렉 메티슨과 랜디킴 그리고 캔송 밴드의 연주, 구현화 사모, 마이클 잭슨 등 수많은 세계 최고의 뮤지션들의 음반 및 공연에 보컬로 참여했던 벨러리 도비, 8-90년대 세계정상급

밴드였던 에어플레이의 메인싱어인 타미 핀달버크의 수준 높은 찬양이 울려 퍼졌다.

이번 콘서트는 10월 29일 LA다운타운에 위치한 AT&T센터에서 열리는 PPFF 기독교영화제를 앞두고 갖게 된 행사이며 MC 사무엘한이 뮤지션들을 소개할 때마다 객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오며 출연자들의 열창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는 등 시종일



GMIT가 주관한 수퍼콘서트에서 타미핀달버크가 찬양하고 있다

KPCA 서노회 제77회 정기노회

이원호 전도사 등 4명 목사안수

해외한인장로회 서노회(KPCA 노회장 강진웅 목사)는 제77회 정기노회를 8일 오전 10시 나성영락교회(담임 림형천 목사)에서 개최했다.

강진웅 노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정기노회 개회예배는 부노회장 권영준 장로의 기도, 미주성신대 중창단의 찬양에 이어 강 노회장이 '자다가 깬 때라'(롬13:11-14)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이어 림형천 목사의 집례로 성찬예식을 가졌으며

강진권 전 노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KPCA서노회 제77회 정기노회에서 강진웅 노회장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

"10만 선교사 시대를 향하여"

22-25일 밴쿠버 제3차 캐나다 세계한인선교대회 개최

전 세계 각지에서 사역 중인 한인 선교사 50여 명이 참가하여 그들의 간증으로 캐나다한인교회와 성도들에게 선교의 열정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키게 될 제 3차 캐나다 세계한인선교대회가 오는 22일(목)부터 25일(주)까지 밴쿠버에서 열린다.

'10만 선교사 시대를 향하여'란 슬로건으로 치르게 되는 이번 선교대회를 준비해온 한인세계선교협의회 박형서 사무총장은 "밴쿠버에 이어서 26일부터 28일까지는 캘거리/제스퍼/밴프 지역에서, (14면으로 계속)

동부교계 게시판



GKYM 지역컨퍼런스 및 후원만찬

오는 12월 27일(화)부터 30일(금)까지 로체스터(Rochester Riverside Convention Center)에서 열리는 GKYM(세계한인청년축제) Rochester '11 본 대회에 앞서 지역 컨퍼런스가 뉴욕/뉴저지와 캐나다에서 열린다. 일정은 △뉴욕/뉴저지: 9월 25일(주) 오후 7시 뉴욕신광교회 스캐나다: 10월 8일(토) 오후 7시 토론토(TBA). 한편 대회를 위한 후원만찬(GALA DINNER)이 한인 1세와 2세를 대상으로 열린다. 일정은 △1세: 11월 6일(주) 오후 6시 대동연회장 △2세: 12월 3일(토) 오후 6시 대동연회장.

▲문의: (551)486-0100, 이메일 gkym2011@gmail.com

영어사역자 청빙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칼리제일한인침례교회(담임 최동갑 목사)가 EM사역자를 청빙한다. 2세 영어사역에 소명이 있고 경배와 찬양예배에 열정이 있으며 한국어 사용이 가능하고 정규신학대학교 졸업(M.Div) 학위가 있는 5년 이상 영어목회 경험자를 선호한다. 이력서(가족소개 및 사진), 목회소견서 등이 필요하다. 접수마감은 11월 31일.

▲문의: (919)870-0970 이메일 piro526@gmail.com

PGM 선교신학포럼

PGM(세계전통인선교회)이 주최하는 선교신학포럼이 10월 18-19일 필라델피아(담임 호성기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오상철 목사(미주이민신학연구소장), 김성훈 선교사, 송상철 목사(예를란타 새한장로교회), 유영기 목사(LA 나성북교회), 김정환 선교사, 유승관 목사(한국 사랑의교회 세계선교부 사무총장), 이형석 목사(타코마중앙장로교회) 등이 초청된다.

▲문의: (610)397-0484

미주기독교방송 후원 골프대회

미주기독교방송(KCBN, 사장대행 문석진 목사) 후원을 위한 골프대회가 9월 21일(수) 오전 11시(샷건방식) Clearview Park Golf Course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100달러이며 그린피, 카트, 파킹, 점심, 저녁 포함한다. 시상 및 저녁식사는 오후 6시 플러스 금강산 식당에서 열린다. 시상내역은 홀인원상 Cadillac 1대, 근접상(볼 2개 \$20): 한국왕복항공권, 메달리스트 1등, 일반조 남녀 각 1, 2, 3등(캘리웨이 방식), 온그린상(\$10), 50:50상(근접 \$10), 장타상(남여 각 1명): 상품.

▲문의: (718)683-0678 김준남 목사



동부개혁장로교회신학교 개강예배에서 신학생들이 찬송하고 있다

동부개혁장로교회신학교 영성훈련

동부개혁장로교회신학교(학장 장영춘 목사)가 2011가을학기 개강에 앞서 영성훈련을 했다.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열린 영성훈련의 강사는 이정현 목사(나성서교회 담임)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일군이 되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정현 목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창12:1-4),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주도권"(출29:1-6, 롬

8:26), "성령님의 강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삼상19:18-24)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첫날에는 장학증서 및 교환패 수여, 동문장학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편 가을학기 수강신청과 등록은 9월 14일 마감한다.

(유원정 기자)

“사고전환과 통감의 지혜로 살아나라!”

뉴욕교협 주최 2011할렐루야복음화대회 성료

“뉴욕이여, 생기로 흥만하라” 뉴욕교협(회장 김원기 목사)이 주최한 2011할렐루야복음화대회가 지난 9일부터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시작된 사흘간의 집회를 마쳤다. 강사 서임중 목사(포항중앙교회 담임)는 “세계 제일의 도시 뉴욕은 가슴 설레게 하는 곳”이라며 “할렐루야대회가 뉴욕에 복음의 물줄기가 되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대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 목사는 첫날 “생각의 방향을 전환하라!”(골3:1-4), 둘째 날 “통감의 지혜로 살아가라!”(삼상12:14-15), 셋째 날 “이제 너희가 살아나라!”(겔37:1-10)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회장 김원기 목사는 “32번째 할렐루야대회를 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다”며 “이 대회가 뉴욕교계의 생명의 샘이며 능력의 불로 미주 안에서 찾아보기 힘든 믿음의 전통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자랑”이라고 말하고 “뉴욕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함께 찬송하고



2011할렐루야복음화대회, 원내는 강사 서임중목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같이 먹는 한 형제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은총”이라고 강조했다.

첫날은 양승호 목사(지도자컨퍼런스준비위원장) 인도로 경배와 찬양, 통성기도, 진군의 나팔소리(문곡주), 대회사 김원기 회장, 서창 미가엘 중창단(포항중앙교회), 기도 이규섭 목사(신행위원), 성경봉독 손석완 장로(평신도부회장), 감사소개 송병기 목사(증경회장), 감사환영사 한창

연 뉴욕한인회장, 찬양 연합성가대, 설교, 결단의 기도, 찬양 뉴욕권사선교합창단, 헌금기도 김연규 목사, 헌금송 박요셉 교수, 광고 현영갑 서기, 축도 신현택 직전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첫 날 서임중 목사는 “모든 일들이 생각에서 나온다. 건강한 생각은 건강한 삶을 가져온다. 살기등등한 바울이 사고의 전환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역자가 됐다”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둘째 날은 이봉삼 목사(선교분과위원장) 인도로 장학금 전달식 김원기 대회장, 경배와 찬양, 통성기도, 은혜의 복소리 동산하람찬양팀, 서창 미가엘 중창단, 기도 문석호 목사(신행위원), 성경봉독 이주익 장로(부이사장), 축사 유병우 뉴저지교협 회장, 찬양 연합성가대, 설교, 결단의 기도, 찬양 기독교부합창단, 헌금기도 임병남 목사, 헌금송 송트리오, 광고 박태규 직전위원장, 축도 김용익 뉴욕목사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장학금은 25명의 학생들에게 각각



뉴욕청소년센터 사무총장 이취임 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예수 십자가 공훈로 재도약 하라”

뉴욕청소년센터 사무총장 이취임 예배

뉴욕청소년센터(이사장 이수일 박사)가 지난 6일 저녁 사무총장 이취임 예배를 드렸다. 김현태 목사가 이임하고 김현돈 목사가 취임했다.

예배는 민병렬 목사 사회로, 기도 이봉삼 목사, 말씀 방지각 목사, 축사 김원기 목사, 이임사 김현태 목사, 공로패 증정, 신임총장 약력소개 이수일 박사, 취임사 김현돈 목사, 광고 민병렬 목사, 축도 김정국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방지각 목사는 마태복음 9장 9-13절을 본문으로 “청소년센터가 다시 시작하는데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청소년센터가 제2의 도약의 시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훈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자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교협회장 김원기 목사는 “만사는 때가 있는데 제일 좋은 때 떠나는 김현태 목사님, 제일 좋은 때 오시는 김현돈 목사님 모두 축하한다”며 “청소년센터가 새롭게 도약하

를 바란다”고 축사했다.

12년 동안 사무총장으로 사역했던 김현태 목사는 미리 준비한 이임사를 낭독하며 감사를 전했다. 후임해준 단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 스태프와 이사를 모두에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다. 또 “계속 청소년센터를 후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취임사에 나선 신임 사무총장 김현돈 목사는 먼저 자신이 경험을 간증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 가장 중요한 사람(인간)은 동역할 때 진정한 가치와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다”며 “하나 되는데 힘쓰며 청소년들을 잘 섬길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센터는 학원사역의 활동의 체계적 강화는 물론, 각종 정기적 상담과 교육교실(부모교실, 교역자 자녀교실, 교역자 상담기술교실, 청소년 비전교실 등)과 청소년 사역(선도 및 전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컨퍼런스와 세미나도 개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원정 기자)



개강예배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했다

퀸즈성인대학 2011가을학기 개강

퀸즈장로교회(담임 장영춘 목사) 부설 퀸즈성인대학이 지난 9월 13일부터 정상수업에 들어갔다. 개강예배는 심의례 전도사 사회로 기도는 박선도 장로가 했으며 말씀은 이윤석 목사가 “하나님과 말씀을 준중히 여기라”(삼상2:30)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성인대학은 매주 화, 금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2시10분까지 수

업을 하고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에는 탁구와 뜨개질 등을 하는 시간도 있다. 과목은 영어, 성경(한영), 시민권영어, 중국어, 음악, 타이치, 태극권, 의학 미술 치매 특강 등이 강의된다.

한편 종강은 12월 9일로 예정돼 있다.

자세한 문의는 (718)460-5506, (646)247-1568로 하면 된다.

http://www.nyifc.org/

바른 영성을 위한 말·씀·집·회

- 일시 : 2011년 9월 15일(목) - 19일(주일)
9월 15, 16일 저녁 8시 30분 - 이종호 목사
9월 17일(토) 저녁 8시 30분,
18일(주일) 오전 9시, 11시 30분 - 김연희 목사
●장소 : 뉴욕 어린양교회(김수태 목사)

The Little Flock Church
뉴욕 어린양 교회

우리는 믿지 않는다.
우리를 위하여 일찍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여인안
여수 그리스도여 그분의 삶을 인생은 사랑할 것...
69-38 47th Ave., Woodside, NY 11377
Tel. (718)899-8309 / CP.(646)623-4551
RE.(718)428-5806 / Fax.(718)899-8433



이종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교 M.Div
Midwest Uni, D, Min 취득
(현) 평화교회 담임목사



김연희 목사

Midwest Uni, D, Min 취득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강의
(현) 신생중앙교회 담임목사

교회모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2:30(영어)
일미타당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요일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예배 오후 8:30(영어)

남가주한인목사회 '남가주선교대회' 개최

9월 16일-18일 풍성한교회 강사 피종진 목사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박효우 목사)는 피종진 목사(남서울중앙교회 회원로)를 초청, '남가주한인선교대회'를 개최한다. 목사회는 12일 오전 11시 J그랜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교대회의 일정을 소개하며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효우 회장은 "미주지역에선 선교를 많이 할 뿐 아니라 선교를 중요시 하는 곳이기에 이번 집회를 통해 다시 한 번 영적 신선한 선교의 바람을 불어일

으키고 세계 선교를 리드해 갈 수 있는 선구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집회 명칭을 '선교대회'라 칭하고 집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남가주한인목사회 44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임원진들은 회기를 시작하며 두번의 대형집회와 두번의 음악회를 개최할 것을 계획했던 바, 지난 3월 윤석진 목사 집회를 개최했고 금번에 피종진 목사 선교대회를 준비했다. 또한 음악회는 회기 초에 '사랑의 콘서트'에 이어 11월 말과

12월 초에 LA와 오렌지카운티에서 메시아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이 선교대회는 풍성한교회(담임

감사신앙 기본으로 세계 선교 감당 선미스트리 감사학교 17일 개강 8주 코스

선미스트리(대표 김정환 선교사 8382 Artesia Blvd #H, Buena Park, CA)가 주최하는 '감사학교'가 오는 17일(토)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8주 코스로 진행 개최된다.

김정환 선교사는 "위풍당당한 하나님의 자녀, 없거나 있거나 어느 상황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위풍당당한 신앙이며, 이 신앙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이라 말하며 "건강이 없어도 주님 한분만으로 인하여 당당하고 재물이 없어도 주님 한분만으로 인하여 당당하고 재물이 없어도 주님 한분만으로 인하여 당당하고 학벌이 없어도 주님 한분만으로 인하여 당당하고 교회가 적어도 주님 한분만으로 인하여 당당하고 성도가 적어도 주님 한분만으로 인하여 당당하고 위풍당당한 감사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군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학교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학교의 목표는 각 성도들과 교회들이 감사신앙을 기본으로 세계 선교를 하는 것이라며 교회와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고 말했다.

이번 감사학교의 제1기 과정은 ▲감사가정 만들기-부부관계(4회) ▲감사자신 만들기-건강한 자아상(2회) ▲감사자녀 만들기-자녀와 상담기술(2회) ▲감사이민 만들

박효우 목사)에서 19일(금)과 20일(토)은 오후 7시30분, 21일(주)은 오전 11시에 각각 개최된다. 또한 남가주한인목사회에서는 목사신분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11월 출간예정인 설교집 원고도 접수받고 있다. 원고 제출 마감은 9월 22일까지.

자세한 것은 (213)422-9191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기-Kingdom Dream 이민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감사마음 만들기-성경적 감사, 오기와 욕망, 감사마음 발, 감사기도 ▲감사영성 만들기-영적인 독 해결하기, 영적싸움, 찬양회복 ▲감사일터 만들기-인간관계, 직업전문성, 사업현장에서 감사 ▲감사선교 만들기-선교의 기초, 부모선교사, 가정선교사, 열방선교사 등으로 진행된다.

강사는 김정환 선교사, 존 김 목사, 수 김 목사, 진미에 가정상담전문가(주정부인가 가정상담사) 등이 참여한다. 등록비는 150달러(교재비, 간식비 포함, 안식년인 선교사 무료)이며 참가인원은 40명 선착순에 한한다.

자세한 문의는 선미스트리 감사학교 (714)350-6957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제8회 창작 가곡의 밤
미주한국기독교문인협회(회장 고영준)와 미주한인창악회(회장 백경환 목사)가 공동주관하는 제8회 창작 가곡의 밤이 18일(주) 오후7시 영생장로교회(담임 김혜성 목사 1829 S. Western Ave. LA)에서 열린다.
▲문의: (818)523-4786

이단대책 세미나
미주이단대책연구회(회장 한선희 목사)가 주최하는 이단대책 예방 세미나가 오는 21일(수)과 28일(수) 오후 7시30분 미주평안교회(담임 송정명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213)381-2202, 484-2574

미기총 지역교회협의회 회장초청 기도회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송정명 목사)는 미국이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을 바라보며 미주 전 교회의 영적 각성 기도운동 전개를 위해 각 지역교회협의회 회장들을 초청해 준비기도회를 갖는다. 일시는 20일(화) 오후 5시부터 21일(수) 오후1시까지 베델한인교회(담임 손인식 목사).
▲문의: (213)448-3493/회장 송정명 목사, (714)401-9874/총무 박용덕 목사, (714)873-7315/베델교회 김영민 목사

산호세교회협의회 총회
산호세 교회협의회(회장 김근제 목사) 제28차 총회가 9월20일(화) 오전 10시 산호세제일교회(담임 김동욱 목사 / 1145 E Arques Ave Sunnyvale CA 94085)에서 개최된다.
▲ 문의: (408)749-9333

인랜드교회 담임목사 임직 및 시무장로 안수식 예배
인랜드교회는 박신철 담임목사의 임직 및 백상철 이종의 시무장로 안수식 예배를 18일(수일) 오후 4시에 개최한다.
▲ 문의: (909)622-2324



나성서울코랄 제67회 정기연주회 공연 모습

나성서울코랄 제67회 정기연주회

나성서울코랄(지휘 진정우 박사)의 제67회 정기연주회가 11일 오후 7시30분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연주회는 1974년 창립된 나성서울코랄의 정기연주회이자 9.11사태의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나성서울코랄의 단원인 문인귀 시인의 9.11추모시 낭송으로 시작된 이날 연주회는 아리랑의 멜로디를 따서 미사곡으로 만든 Missa Arirang, 한국민요, 한국가곡, 성가곡 등 4파트로 나누어 연주회가 진행됐다. 특

히 Missa Arirang은 한국의 정서가 묻어나기에 충분했으며 한국가곡과 민요 성가곡이 연주될 땐 한가위의 정취를 이민자의 마음속에 잔잔히 울려 퍼졌다.

이날 연주회는 소프라노 김희우와 메조소프라노 주광옥의 듀엣 및 독창, 클라리넷 연주자 김상현이 피아니스트 황인교와 피아노와 클라리넷을 위한 소나티네 연주를 했으며 앵콜곡 '사랑으로'를 이날 모인 청중들과 함께 불렀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선교대회를 설명하고 있는 남가주한인목사회 임원들. 우측으로 부터 정요한(총무), 박효우(회장), 김영모(부회장) 목사.



남가주 원로목사회 총회에서 이상현 신임회장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

남가주 원로목사회 회장에 이상현 목사 제60회 총회 "기도하며 책임 감당 하겠다"

남가주한인기독교원로목사회(회장 남주식 목사) 제60회 총회가 지난 6일 오전 10시30분 로스앤젤레스 한인침례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열려 새 회장으로 이상현 목사를 선출했다.

회영 목사 △회계: 신성종 목사 △부회계: 조영제 목사 △회원부장: 이동준 목사 △선교부장: 이기홍 목사 △선교부장: 홍순도 목사 (박준호 기자)

정회원 35명 준회원 24명 등 총 59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 이상현 신임회장은 "부족한 사람이 원로목사회 여러 선배들이 있는데 회장직 맡게 돼 짐이 무겁다. 주 안에서 기도하며 책임 잘 감당해 나가도록 하겠다. 많은 도움과 기도 부탁드립니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한편 총회가 열리기전에 가졌던 예배는 남주식 회장 사회로 시작, 이성락 부회장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히11:1-8, 24-26)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으며, 나운태 목사가 '조국과 통일, 미국, 세계평화, 세계복음화'를 위한 특별 기도를 인도하고 남주식 회장 축도로 마쳤다.

다음은 분회 새 임원 명단.
△회장: 이상현 목사 △1부회장: 이성락 목사 △2부회장: 강성태 목사 △총무: 임순삼 목사 △서기: 한

제4회 시로 드리는 예배 성료

시와찬미의전당이 주관한 제4회 '시로 드리는 예배'가 11일 오후 5시 로스앤젤레스연합감리교회(담임 윤일흠 목사)에서 개최됐다.

정문지 시인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본 교회 신병욱 목사의 기도, 시인 백승철 목사(예피포도재단 대표)가 마태복음 6장 26-3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백 목사는 "예수님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소중한 것을 가지고 비유를 말씀하셨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가치 없어 보이는 것들을 끄집어내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기독교 문헌계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목적을 이루는데 쓰임 받아 좋은

가치를 나타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이혜란, 김숙영, 김영숙, 이애미, 이지은, 정문기, 김예지, 이민미 시인과 윤일흠 목사가 각각의 창작 시를 낭송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소천한 진현주 시인을 생각하

며 윤일흠 목사의 시에 곡을 붙인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를 정문기 정희은 시인이 불렀다.

또한 배정웅 시인과 백승철 목사가 찬조로 나서 시낭송을 했으며 꿈이있는자유 정종원 목사(아이엠교회 담임)가 특송을 했다. 이날 예배는 윤일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시로 드리는 예배가 마친 후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SAINT MISSION UNIVERSITY

목사 · 선교사 후보생 장학생 모집

www.saintmu.us

3407 W 6th St, # 705 Los Angeles CA 90020
213-251-0191, 213-514-0037 saintmu10@gmail.com

선언문

제 46회 대한 예수교 장로회(대신) 미주총회에서 결의된 선언문

1. 우리는 성경적인,성령적인 근본주의 신학에 입각하여 그 정신을 이어받아 초대교회로 돌아간다
2.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사수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 까지 십자가와 부활의 메세지를 증거 한다
3.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가정을 파괴하는 동성연애,동성결혼을 결사 반대한다
4. 우리는 베리칩을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보며 미혹의 영으로 간주하여 이를 결사 배척한다
5. 우리는 교회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무상 숭배와 이단의 세력을 배척한다
6. 우리는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권위를 깨고 하나님의 종들의 성직을 파괴 하는 사탄의 공격을 적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보며 이를 반대한다
7. 우리는 wcc 운동을 반대한다
8. 우리는 세계 각국에 흩어져있는 약 700만 코리아인 디아스포라, 해외동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도하며 성령으로 하나되기를 결의한다.
9.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위대한 지상명령인 세계선교와 복음전도와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사회봉사하기를 준행한다.
10. 우리는 미국에 있는 정통과 보수를 이어가는 복음주의교인 T.M.(Transformation Ministries) 교단과 상호 협력하기로 결의한다.

위에 결의된 사항을 준수하며 엄숙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명령을 실행함에 이를 공고 합니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대신)미주총회장
김세창 목사 및 임원일동
주후 2011년 9월 8일

한기총 9월 27일 임시총회...정상화 본격 시동

“한기총 복음주의 교단, WCC총회에 명의허락 사실 없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김지연 목사·사진)가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한기총은 66개 회원 교단과 19개 단체에게 임시총회 소집 공고안을 발송하고 임원과 위원장 인준을 비롯해 분림 및 가임 회원 승인,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한다고 7일 밝혔다.

임시총회는 지난달 24일 김지연 대표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이 법원에 의해 취소됨에 따라 이루어

어지게 됐다. 임원 인준은 지난 1월 정기총회 파행 이후 처리되지 못했었다. 임원은 공동회장과 부회장,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를 비롯해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다.

지난 7월 7일 특별총회에서 통과된 정관에 따르면 임원 선출은 교단과 단체의 안배를 원칙으로 하되 교세와 전문성 등을 감안한다. 공동회장은 회원 교단과 단체의 총회장이나 대표 중에서 선임하게 되며 부회장은 부총회장이나 부대표 중 선임

한다. 공동회장과 부회장의 수는 각각 25인 이하, 30인 이하로 정해져 있다. 임원 선출은 대표회장과 직전 대표회장, 약간명의 전형위원회에서 선정해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임원 인준이 확정되면 한기총의 실제적 기능은 완전히 회복된다. 그럴 경우 각종 현안에 대한 참여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10월부터 실무를 진행하더라도 길 대표회장 체제의 정상적인 활동 기간은 3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

한편 한기총은 최근 세계교회협

의회(WCC) 한국준비위원회가 발표한 실행위원 명단과 관련해 “한기총 대표회장과 복음주의 교단들은 2013년 WCC 총회에 공동회장으로 명의를 허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한국교회의 대표적 복음주의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을 포함한 고신, 대신, 기성, 기성, 예성 등 복음주의 교단 총회장이 포함된다”는 말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19일부터 회원 교단들이 정기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여념이 없는 때에 개혁주의 교단들이 마치 WCC대회를 지지하는 양 발표하는 건 각 교단의 총회에 혼란을 주기 위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며 “한기총 개혁주의·복음주의 교단들은 처음부터 WCC 한국대회를 반대해 왔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예장합동, 제비뽑기 제도 바뀌나?

총회 앞두고 제도 변경 초미의 관심사

[미션라이프] ‘금권선거를 막는 대안’으로 여겨졌던 제비뽑기 선거 제도가 바뀔 것인가. 제96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를 10여일 앞두고 제비뽑기 제도 변경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제비뽑기 선거제도는 이미 지난해 총회에서 사실상 개편된 거나 다름없었다. 당시 ‘총회 현장에서 선거인단 30%를 제비뽑아 이들이 부총회장을 선출한다’는 안이 찬성 517대 반대 288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이른바 ‘제비뽑기+직선제’ 절충안이다. 하지만 다음날 ‘기타 부임원은 3개 권역별로 안배해 부총회장이 지명한다’는 제적이 안이 문제가 됐다. ‘그렇게 될 경우 당선된 부총회장 때문에 금권선거가 재발될 것’이라는 우려가 대의원들의 표심을 자극한 것이다. 결국 절충안은 부결되고 말았다.

예장 합동은 개혁교회 전통에 따라 직선제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제85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제비뽑기를 결의한 것은 금권선거라는 고질병을 막아보자는 교육적책이었다. 예장합동 내 개혁그룹인 ‘교회갱신을위한목회자협의회(교갱협) 김경원 대표회장은 “제비뽑기라는 제도 도입 없이 캠페인만으로는 금권선거를 막을 수 없었다”며 “제비뽑기는 우리 교단의 자람이 아니라 수치”라고 평가했다.

이번 총회에서 다들 안건 중엔 지난해 부결된 절충안이 다시 올라와

있다. 남서울노회(노회장 오세광 목사)가 제출한 안건을 보면 ‘기타 부임원은 부총회장이 지명한다’는 표현 대신 ‘리닝메이트’라는 표현을 썼다. 총회 전에 미리 팀을 만들게 되면 그만큼 금권선거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밖에 절충안이 아닌 완전직선제를 요구하는 총회 안건도 3개나 올라와 있다. 금권선거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면 직선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교갱협 등은 어떤 식으로든 제비뽑기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제비뽑기가 민의를 왜곡시킬 뿐 아니라 리더십 약화로 교단 내외의 영향력마저 감소된다는 게 이유다. 반면 일각에서는 금권선거 방지, 성경적인 방법을 이유로 들어 제비뽑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원들 사이에서도 입장은 갈리고 있다. 김삼봉 총회장은 “현실적으로 제비뽑기 개선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이치우 총무는 “제비뽑기 제도는 이제 바뀔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제비뽑기 유지, 직선제 도입, 절충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돈 안들이고 제대로 된 일꾼을 뽑자’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그동안 제비뽑기 제도가 돈을 안 쓰는 데는 성공했지만 제대로 된 일꾼을 뽑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총회에서 제도 보완이 불가피해 보인다.

중국 단둥서 40대 한국인 선교사 독극물 피살

파송교회 없이 단독 비즈니스선교...“순교 각오했다”

[미션라이프] 지난달 21일 중국 라오닝성 단둥(丹東)에서 대북선교 활동을 하다 의문의 죽음을 당한 김모(가명·46) 선교사는 순교를 각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북한선교단체 관계자는 9일 “그는 통일을 염원하며 고난 중에 처해있는 북한 동포를 살리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던 선교사”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김 선교사는 한국의 모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M.Div.) 학위를 받고 모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에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한 신학교에서도 신학을 공부하고 3년간 미국서도 사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선교에는 1992년 2월 입문했다. 한국 내 파송교단이나 파송교회 없이 단독으로 몇몇 단체와 협력사역을 하면서 단둥에서 식품 공장을 운영했다. 생산된 제품은 압록강교를 통해 신의주 내 소학교에 빵과 두부를 제공하는 등 이른바 비즈니스 선교를 해왔다. 파송 단체가 없었던 것은 북한 선교 활동 특성상 신분 노

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수를 받은 교단에서도 탈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선교사 유골은 사건 발생 10여일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7일 오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교회에서 탈북선교단체 주도로 장례에 배(천국환송예배)를 드리기도 했다. 김씨의 죽음 이후 중국 선양과 단둥 등지에서 활동 중인 선교사들은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사건에 따른 여파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중국 내 선교사 가운데 대북 사역을 하는 이들이 소수이긴 하지만 이번 사건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이다. 선교 관계자들은 대북 선교사와 인권 운동가들을 향한 조직적인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모 선교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언론 보도가 자칫 선교사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6회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 시상식

손인웅 목사, 노희석 목사, 이재천 사장 수상

한국기독교복음단체인 연합(이하 한복총,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이 주최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 시상식이 지난 2일 성결대학교 야림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한복총 교회일치위원회(위원장 오범열 목사) 주관으로 열린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은 심사위원회를 거쳐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데

기여한 손인웅 목사(덕수교회 담임), 노희석 목사(명일성결교회 담임), 이재천 사장(CBS기독교방송)에게 제6회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을 수여했다.

손인웅牧사는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을 통해 한국교회가 분사와 삼김의 장을 확장하는데 기여했으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를 대표해 한

국교회 개혁 정신을 주도한 공로로 수상했다.

노희석 목사는 한복총 대표회장을 역임해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구현했으며 성령운동을 통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와 장을 확장한 2007한국기독교성령100주년대대회, 2010천만인성령대대회의 주도적 사역을 한 공로로 수상했다.

이재천 사장은 CBS기독교방송 사장으로 방송프로그램과 보도를 통해 한국교회가 사회전반과 소통하는 언론상을 구축했으며, 개혁적 보도로

한국교회 위상을 제고하게 한 공로로 수상했다.

시상식에 앞서 축하공연에서는 덕수교회 마리아중창단과 군포제일교회 마리아중창단, 테너 노종윤, 베이스 이재준이 출연해 찬양하고, 2부 시상식은 상임회장 김동정 목사의 사회로 김용완 소강석 오범열 안준배 김창곤 박요셉 손광호 목사가 순서를 맡아 진행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 상패, 상금이 수여됐다. (기사제공: 한복총)

기독교 정당 우려 교차

참여 인사들 불참 의사 잇달아

[미션라이프] 기독교 정당에 참여하기로 했던 인사들이 ‘불참’ 의사를 잇달아 밝히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 정당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건강한 목회를 위한 작은 교회 목

회자들의 연합인 교회20목회자운동(실행위원장 신형진 목사)은 8일 성명을 통해 ‘선교의 문을 막는 기독교 정당 창당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목회자운동은 “성경적 신앙과 사회적 양식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

인들이 기독교의 본질적 사명을 왜곡하는 기독교정당 창당에 미혹되지 말기를 당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목회자운동은 그러면서 “기독교 정당 창당을 강행할 경우 그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시민단체와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교회연론회는 9일 재차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교계에 기독교정당 문제가 불거져 나올 때마다 문제 지적과 원론적인 찬성 입장

은 많았지만 찬성과 반대에 대한 직접적인 토론회는 많지 않았다”며 “오는 14일 교회연론회 주최로 열리는 ‘기독교정당 과연 필요한가?’ 토론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회연론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독교정당에 대한 찬반 논란을 넘어 기독교적 정치의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2011 인권백서’ 발간

북한에서는 성경책만 소지해도 엄하게 처벌당할 뿐 아니라 신앙 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범으로 몰려 비공개처형을 당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이사장 김상현)가 7일 발간한 ‘2011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대부분 종교사범들은 정치범으로 분류되고 불벌 체포, 가택수색, 실종 심지어 공개·비공개 처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백서를 분석한 이자은(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은 “북한에서 탄압을 받는 종교는 개신교와 가톨릭, 무속신앙 등이지만 가장 심한 처벌대상은 개신교와 가톨릭”이라고 지적했다.

종교사범에 속하는 정치범인 경우 공개처형보다 비공개처형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백서에

따르면 공개처형은 2190건에 달했다. 그중 형사범 1442건(65.8%), 종교사범에 속하는 정치범 292건(13.3%) 순이었다. 반면 비공개처형은 정치범 106건(47.7%)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이 형사범 75건

북한, 종교 박해 2000년 이후 최악 수준

(33.8%)이었다.

이 연구원은 “종교인의 경우 비공개처형이 공개처형보다 더 높은 이유는 김일성이 아닌 다른 절대자를 믿는 종교 사상이 대중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백서가 밝힌 관련 사례 가운데 흥미를 끄는 것은 공개처형 직전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을 하

라고 할 때 자신의 신앙을 담대히 고백하곤 한다는 점이다. 함경북도 출신 최모씨는 “2000년 온성군 철다미 철살현장에서 중국서 함께 성경공부를 했던 김모씨를 봤다”며 “그는 입에 재갈을 물고 있었는데 죽기 전 ‘주여, 이 불쌍한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란 말을 외친

뒤 총살당했다”고 증언했다.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 사례는 주로 불법체포, 가택수색 등의 방식이다. 종교사범으로 의심을 되는 경우엔 보위부에서 따로 주변인을 불러 성경책 소지 등 신앙생활 여부를 묻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경북도 출신 박모씨는 “2005년 남자친구가 보위부에 체포됐는데 보위부가 나를 불법체포해 무슨 관계인지, 평소 기도를 하거나 성

경책을 봤는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소리를 했는지 물어봤다”고 밝혔다. 중국인 이모씨는 2004년 성경책을 유포한 죄로 북한에 의해 구금되기도 했다.

종교박해 발생연도를 살펴보면 90년대부터 사건 빈도가 높아지는 데 이는 90년대 식량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연구원은 “고난의 행군시기인 90년대 불법월경이 많아졌다. 당시 중국에서 기독교인의 도움을 받거나 중국에서 기독교를 접하게 된 뒤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백서는 2000년 이후 종교박해로 인한 처벌이 급증하는 것을 볼 때 이 시기를 기점으로 북한 종교 지형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 것이라고 분석했다.

24시간 영업

뉴욕의 맛을 즐기세요

New York Kom Tang

24시간 오픈

교포사회의 등대 주일은 쉽니다

연하: 32 W. 32nd St., New York, NY 10001 Tel: 212-647-8482
뉴저지: 329 Bergen Blvd Palisade Park NJ 07659 Tel: 201-346-0201

다이나믹스

교회 행사에 필요한 주문 제작 티셔츠, 배너 등을 가장 저렴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교회 로고 프린트, 저수 Towel
앞면 Two color 로고 프린트 T-shirt 50벌 이상 \$5.00
양고래더 제작

교회 로고 프린트, 저수 Towel
대건도, 점도 및 각종 무술장비

Tel 516-354-8484, Fax 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www.dynamictowels.com

미주크리스천신문

아이폰 앱 Application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를 지향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아이폰용 앱을 출시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미주크리스천신문에서 제공하는 전체뉴스와 칼럼을 구독하실 수 있으며 미주내 등록된 교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주크리스천신문은 45개국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합니다. 신문보내기 후원을 통해 귀한 선교에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기능 및 구성

전체뉴스, 칼럼, 교회검색

아이폰이나 아이팟터치를 이용해서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Yoo Travel!

유 여행사

항공권 전문 도매 대리점

아시아나 · 대한항공
서울행 초 특가 요금 판매

Tel. 718. 463. 9500 / Fax. 718.463.7231
138-85 Roosevelt Ave., 2 Floor Flushing, NY 11354

www.sbm.or.kr

크리스천이아프면 심어는 안행-노! SBMO! 처방을 제시합니다.

성경의 생명의 말씀

1. 믿음의 신앙의 From Sorrow to Faith
2. 신앙의 생명의 From Faith to Inevitable Life
3. 생명의 운명의 From Inevitable Life to Cultural Impact

www.sbm.or.kr

사무처: 22564-3191, Fax: 022564-8933
E-mail: sbm01@nhanmail.com

빛과 사랑
Light & Love
합평인 권미진

51 West Overlook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883-1142

136-20 38th Ave. suite 9A
Flushing, NY 11354
lightlovely@yaho.com

탄자니아

선교지로 돌아온 후 두 번째로 맞이하는 건기입니다. 먼지가 일파나 날리는데, 빨간 벽돌색 지붕이 먼지로 다 덮여 색깔이 없어 버렸습니다.

이곳에 돌아온 지 1년이 조금 더 지난. 그리 길지 않은 시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환경 속에서 마음도 몸도 벌써 지쳐버린 듯 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3절에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울범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울범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로마서 2장에는 이러한 회칠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울범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물건을 도적질 하느냐 울범을 자랑하는 네가 울범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양보라는 것에 조금씩조금씩 밀려, 나 자신을 방치해놓고 살아온 선교지의 삶에 오늘은 마치 먼지가 쌓여 색도 분간할 수 없는 지붕처럼 회칠한 마음과 같이 되어버린 저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조아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지바람이 유난히도 세계 불어대지만, 오늘은 오히려 그 바람 앞에 드러내어 놓고 쌓였던 먼지들을 털어내고자 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연약함을 호소하며, 이 땅에 소원을 이루시고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버리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적셔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물결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능력이 되신 주 예수여...

전도 (Mkutano) 8월 들어서 홍보로 마쿠루라는 곳에서 한 달 만에 다시 전도대회가 열렸습니다. 도로 달에서 약 5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차로는 두시간반 정도 걸렸습니다. 이곳은 베올라 교회 담임인 레비슨 목사가 길러낸 전도자 잭슨 이사가 사역을 시작한 곳입니다. 비록 홍보로 지은 작은 교회이지만 이번 전도대회를 통해서 교회가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날, 한 가족이 집회에 참석하여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튿날은 이 마을 지도자인 면장이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4박5일이 끝난 집회에 31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50여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교회였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31명과 함께 작은 정성들을 모아 교회를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은 베올라 교회에서 이곳 홍보로 마쿠루 교회의 집회를 돕기 위해서 약 35Km 멀리 떨어진 이곳까지 버스가 없어 걸어서 집회에 참석한 것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마음에 눈물이 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심정이 얼마

나 강하길 래 자기들이 먹은 옥수수 가루를 자루에 담아 머리에 이고 그 먼 거리를 뜨거운 태양빛에 발걸음을 불들고 끝없이 걸었으리라 생각하니, 아프리카의 햇빛보다 더 강한 성도들의 사랑을 보며 감사드렸습니다. 한 달 남짓한 기간 안에 두 번의 전도대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출석하기로 작정한 그분들이 잘 양육되고 성장되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센터 사역 선교센터는 여러 크고 작은 일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달 이루어지고 있는 전도대회를 위한 준비와 이곳 건축을 위한 행정의 전반적인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선교센터를 들어오면 차들이 돌아나갈 수 있는 작은 로터리(라운드어바운트)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힘이 닿는 대로 조금씩 조금씩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우시는 손길들을 향하여 늘 감사드리며 저희들과 동일한 축복의 열매가 맺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달랠살림을 갖습니다. 시장에서 가서 도도마에서는 살 수 없는 배추와 오이도 사고 우유와 주스도 사고 전도대회에 사용될 스피커도 샀습니다. 짐들을 트럭 뒤에 싣고



숙식했던 현지 교단 게스트하우스에서 아침 일찍 출발하여 도도마로 향하는 중 시내 한 가운데를 지나오면서 조금씩 차들이 밀리기 시작하더니 앞뒤로 출근하는 차들도 꽉 막혀 기다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 도둑들이 트럭 뒤에 올라타 묶여져 있는 짐들 가운데 가장 귀한 물건들이 들어 있는 박스 하나를 훔쳐가 버렸습니다. 어두운 밤도 아니고 사람들도 없는 한적한 곳도 아니고 차들도 사람들도 불베는 대낮에 아무 두려움 없이 차에 올라와 물건을 훔쳐갈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차를 세워놓고 정신없이 뛰어가 사방을 찾았지만 누구하나 본적이 없었고 내 모퉁이입니다. 망연자실하여 차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 무거운 박스를 어떻게 가져갔을까? 차에 올라와 물건을 훔쳐가는데 그 많은 차들이 보고서도 어떻게 누구하나 혼을 올려주지 않았을까? 어떻게 이런 실수를 내가 하지? 온갖 생각들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리니 말아야 할 중요한 것들이 그 안에 있는데... 모든 자료들이 담겨있는 하드디스크, 프라쉬 메모리, 노트북, 전도대회에 사용하려고 샀던 스피커 등등.....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무엇보다 예민하게 깨어있지 못하고 긴장이 풀린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지 하고 말입니다. 아내와 저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것 같습니다. 트럭 뒤에 수많은 차들 가운데에는

선교지 편지

적어도 이 나라에서 한 가닥 한다는 공무원들, 회사 기업인들, 사무원들, 1억6천만원짜리 랜드 크루저를 타고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어떻게 단 한 번의 혼을 올려주지도 않았는가? 도대체 그들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무엇 때문에 그들은 살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가? 그들의 이웃은 누구인가? 내가 가장 큰 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때도 그들을 섬길 수 있을까? 아니면 떠나야 할까? 아니면 그들과의 관계에서 철저한 보호정책을 펴면서 나만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야 하나?

수많은 질문들이 일주일 내내 저를 괴롭혔습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결심은 오히려 현지인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문을 더 닫아 버리고 매몰차 버리는 저희들이 될까 힘들어 하면서, 심자가 앞에 그저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거주 하는 것에 대해서 나그네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역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에 없어도 될 것이 그렇게도 많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가 되어 전도자로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해지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나눕니다.

- 1. 힘든 기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지치 않고 환경에 불평하지 않고 이곳 현지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며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저희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이곳 풍토병에서 잘 견딜 수 있도록)
3. 저희들 자신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4. 이곳 현지지도자들이 영육 간에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5. 전도된 심령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6. 교회들이 하나님의 돌봄을 받게 되었고, 개척되어 가는 교회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7. 차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전도대회에서도 트럭이 빠져서 빼내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트럭이 가야 하는 길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4WD 자동차가 사역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기도부탁 드립니다
8.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모아 교회를 짓고 있지만 지붕을 얹는 양철과 나무들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9. 저희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아미니, 푸라하).
주안에서 늘 영육 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도도마에서 황광인, 영숙 선교사 드림.

케냐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62:6하-7).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와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함께 하기를 원하며 선교지 케냐에서 문안드립니다.

가뭄, 굶주림 계속된 가뭄으로 케냐의 많은 곳에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달전 약 250만 명이 굶주림에 처하고 있었는데, 2달이 지난 지금은 케냐 인구의 1/10에 해당하는 400만 명이 굶주림에 처해 있습니다. 케냐는 8월 초에 케냐인들이 케냐를 스스로 돕자고 하는 모금을 해서 굶어가는 이들을 위해 옥수수와 물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싱가 신학교 2011년 첫 학기가 지난 7월 16일 종강을 하였습니다. 건축과 8월의 단기선교팀을 맞을 준비를 하는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3과목을 가르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1학년의 크리스천의 삶, 2학년의 조직신학(인간론)과 3학년의 바울의 선교방법론을 강의하였습니다. 8월 15일부터는 특별과정 학생들이 와서 2주간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에 2명의 학생이 더 왔고, 멀리 마사이부족의 학생이 왔습니다. 그래서 24명의 특별과정 학생과 26명의 일반과정 학생들 모두 50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싱가 신학교가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들을 길러 낼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샌디에고 소망교회 단기선교 28명의 단기선교팀이 8월 2일부터 13일까지 이곳에서 사역하였습니다. 젊은 분들은 키바와 마싱가에서 오전에는 여름 성경학교(VBS)를 하고, 오후에는 키바에서는 가가호호 전도를 했고, 마싱가에서는 노방전도를 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같이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과의사와 치과의사와 간호사 한 분은 의료사역을 해주셨고, 어른들은 교대로 어린이 사역, 전도, 의료사역과 중보기도로 같이 도와주셨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료

사역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모여와서 의료진들은 늦은 시간까지 진료하느라 많이 힘들었지만 한분이라도 더 진료하기 위해 애쓰시는 모습을 보며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기쁨으로 함께 사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치원, 유치원교사 훈련대학, 현지인 선교사 훈련원 건축 유치원 교사 훈련대학은 5월 학기에 7과목을 가르쳤습니다. 이에경 선교사가 5과목을 가르치고, 신학교 교수인 무인태목사가 2과목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요구한 24과목 중 10과목을 공부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건축을 할 때 소금이 많은 우물물을 쓰지 못하고 수돗물을 사와서 건축을 하는데 지난 7월에는 그나마 나오는 수돗물도 끊기어 공금이 안돼서 일을 못하고, 벽에 물을 뿌리지 못해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울고 있을 때 모두들 비올 때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날 이후 며칠을 하나님께서 비로 어려움을 넘겼습니다. 해가 뜨거운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벽을 창문 위까지 쌓았습니다. 건축비가 잘 채워져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훈련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례 남녀 수련회 이곳에서 해마다 열리는 남녀 연례수련회가 각각 있었습니다. 여성 수련회가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키바지역에서 있었고, 남사 수련회는 25일부터 27일까지 마싱가 신학교에서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훈련하고, 훈련받는 아름다운 모습에 마음이 흐뭇합니다.

가족 소식과 기도제목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의 기도제목을 보시고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굶주리고 있는 많은 케냐사람들을 위하여 △ 마싱가신학교가 은혜중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길러내도록 △ 마싱가 신학교 부설유치원, 유치원교사훈련대학, 선교사훈련원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 스가족의 영적, 육적 건강을 위해, 특히 애복이와 인혜가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평강이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위에도 하시기를 모든 일들 위에 언제나 함께 하기를 기도 드립니다.
케냐에서 이사와, 이에경 선교사드립니다.
바뀐 주소: Rev. Isaiah Lee C/o Africa Inland Mission P.O. Box 3611 Peachtree City, GA 30269-7611

한국 핸드폰발령기세요 702.812.4770 Kim Wray. \$3.00 a day, 39¢ a wk. 공짜! 1개월 3.00, 3개월 9.00, 6개월 18.00, 1년 36.00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국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책방. 2177 W. Olympic Blvd., #222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82.4638 Fax: 213.582.4194

GRAND OPENING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대학교(원) www.reformeduniv.org.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문예창작학과. Toll Free 1-800-281-2123

기독교 결혼 정보회사 HANA NOBLESSE. 초혼, 재혼. Young Kim 213.514.2004. youngkim720@hanmail.net 848S. Gramercy Dr #106 L.A., CA 90005

“선교지에 미주크리스천신문을!” “우리 모두 보내는 선교사가 쉽다” *원하는 선교사님을 지정하거나 후원 선교지역을 명시해주시면 본지가 선교사님과 연결해드립니다. 후원회망 지역(나라): 후원자 한글, 영문, 주소, 전화, 이메일, 기타. 1년 후원 / 2년 후원 / 3년 후원 * 약정 후원 년수에 O동그라미 해주세요. 후원방법: 1년 구독비 190달러를 본지로 우송해주시면 됩니다(미국내는 100달러). Pay to Order: The Korean Christian Press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 E-mail: NY@chpress.net

온두라스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온두라스는 우기입니다. 거의 매일 한두 시간 정도 내리는 열대성 폭우는 정말 대단합니다. 산 속에서 살아가는 렌카 마을 사람들은 자연에 순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분주하게 농사하던 일손을 멈추고 산 너에서 비를 피하곤 하지요. 비가 그친 후에 산모퉁이에 내려진 아름다운 구름의 모습은 정말 장관이지만 이들에게는 큰 감흥을 주지 못하는 것 같네요. 이들의 삶은 생존이기에 삶을 누릴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이지요.

생존과 삶을 누리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지요. 삶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그 속에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며, 아름다움이 있지요. 그러나 생존은 그저 "태어나다, 먹다, 죽다(nació, comió, murió)"의 본능적인 삶이지요.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에게는 늘 마음속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뿐이지요. 더 낮아지고 더 "단순한 삶"을 살아가고자 오늘도 힘을 다하지만... 영성신학자 리처드 포스터는 그의 책 "Freedom of Simplicity"에서 "단순한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존의 삶"이라고 했는데, 복음이 우리의 삶에 뿌리내리면 철저한 하나님의 존의 삶 즉 단순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삶으로 그리는 복음"은 바로 "단순한 삶"과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오늘 아침 살전:1:6-7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나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분이 되었느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존의 삶에서 본능적으로 원시적 삶을 살아가는 분들과 더불어 살면서 "말씀으로 주님을 받는 자"되어 이들에게 주님의 본을 보이는 삶을 잘 살 수 있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부족하지만 단순한 삶으로 살아가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살전:1:6-7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나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분이 되었느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존의 삶에서 본능적으로 원시적 삶을 살아가는 분들과 더불어 살면서 "말씀으로 주님을 받는 자"되어 이들에게 주님의 본을 보이는 삶을 잘 살 수 있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부족하지만 단순한 삶으로 살아가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선교

8월 한달 동안 메릴랜드 락빌장로교회(1-8일), 필라 우리교회(8-13일), 뉴욕선교교회(20-27일)에서 오셔서 이곳 산골마을을 섬겨 주셨습니다. 얼마나 열심을 다해 섬겨 주셨는지요! 아름다운 섬김의 장의 좋은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단기기간에 현장 선교사가 해야 할 일이었지만, 감당할 수 없었던 사역들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락빌장로교회 선교팀은 매일 "마을에 두루 다니사...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말씀대로 산이시드로, 아자꾸알과, 몽케카구아, 부에블로 비에호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선교의 핵심적 사역이지요.

△필라 우리교회는 라 우니온 지역과 몽케카구아 지역의 국민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먼저 학교를 점령(?)한 후에 아이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가정 방문하여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전략의 좋은 모델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뉴욕선교교회 단기팀은 영어권과 한어권이 함께 아자꾸알과 교회와 몽케카구아 교회에서 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사역(두 교회), 의료선교(아자꾸알과, 시프레스), 학교사역(시프레스, 아자꾸알과) 및 몽케카구아 학교에서 교사들에게 컴퓨터 강의로 지역 사회를 섬기는 사역도 감당했습니다. 몽케카구아 교회 지도자로 양육중인 아구스틴 형제의 결혼식(20일)을 위하여 수고해주셨습니다.

몬테베르데 성경학교 사역 지난 달 기도편지에서 말씀드린 몬테 베르데(Monte Verde) 성경학교는 9월, 10월에 준비하여 11월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몬테 베르데 지역은 Opalaca 지역으로 주변에 약 30여개의 마을들이 있습니다. 오지중의 오지이지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곳인데 저의 마음과 기도 가운데 할까 한 곳이지요. 지난 번 한미장로교회 의료팀이 오셔서 섬겨주셔서 사역이 활발하

선교지 편지

회기 세워지도록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 학교 및 청소년 사역 준비(컴퓨터 및 병제) 방과후 학교는 10월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오후 2시부터 3시간 정도 성경, 악기, 컴퓨터, 영어 교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아디라 선생님께서 헌신해주셨습니다. 컴퓨터 강의를 위하여 뉴욕선교교회에서 컴퓨터 5대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봉틀은 인디애나 은혜장로교회와 락빌장로교회에서 5대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음

교회 개척 사역 앞으로 새로운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 연구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도 가운데 있는 지역은 La Union, Naranjo, Monte Verde 인근 지역입니다.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건축을 위하여(10여 교회 및 개인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몽케카구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60-80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작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미 2년 전에 예배당을 지을 땅을 구입했습니다. 작은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시일만으로 모아주시면 우기가 끝나는 10월부터 공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의 기도는 10여 교회들이 참여하여 각 교회에서 2,000불을 후원해 주시면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교회 몫을 감당해 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기도 가운데 아름다운 교

8:7)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달에 처음으로 발자국을 남긴 날 스텐트인 "Este es un pequeño paso el hombre, un salto gigantesco para la humanidad"(한 인간에게는 작은 발자국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발자취이다)라는 말이 기억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작은 사역들이 렌카 인디언들에게 큰 발자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집의 음식이 되며"(잠 27:27) 지난 달 첫 밭걸음을 시작하였는데 산페드로술라의 한 회사에서 양을 7마리를 기증해 주셔서 여러 가

정에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양 두 마리를 분양받은 할머니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간증을 해주셔서 모두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고, 염소의 젖을 통하여 아이들이 영양 보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 염소와 함께 송아지도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과 떡이 함께 하는 사역으로 발전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병아리 부화기를 구입하여 현재 시험 가동 중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심자"(Siembra futuro para los niños)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게 병아리를 나누어주려고 합니다. 사역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segunjang@gmail.com).

장학금 사역 몽케카구아에 Milta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엄마 혼자 여덟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학교를 중단하고 가사를 돕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성경암송대회에서 시편 1편과 23편, 에베소서 6장을 완벽하게 외워서 최우수상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로마서 8장과 십계명(출20:3-17)을 모두 외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렌카 마을과 온두라스를 섬기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시기 바랍니다. Milta를 시작으로 믿음이 좋은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렌카 인디언을 섬기는 장세균 선교사 드림

(9면에서 계속) 그리고 29일부터 10월2일까지는 토론도의 7개 교회에서 열리게 돼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7700km를 횡단하는 대장정의 선교대회가 될 것"이라며 "전 세계 한인선교사 외에 목회자와 사모 및 전문인 특히 선교현신 후 은퇴한 선교사 등도 강사로 참가해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에게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소명을 일깨우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총장은 또 "이번 대회가 지난 1880년 캐나다 선교사가 조선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지 100년 만에 열렸던 1980년 여의도 세계선교대회가 성령폭발을 통해 선교한국의 전환점이 됐음을 감안할 때 이번 대회를 통해서도 선교 헌신자들이 대거 결신하는 대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왔다"고 말하면서 지난 1, 2차 대회에서 놀랍게도 수 백 명의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선교 헌신 대열에 동참했음을 상기시켰다.

한편, 토론도 선교대회 기간 중인 9월 29일 오후 2시부터 수경교회(주권태 목사)에서는 '캐나다한인교회 선교협의회'가 발족하게 될 예정이다. 본 협의회는 20개 교단 및 단체장이 참석하며 서부지역에서도 총대를 과련해 본 협의회의 창립에 참여하게 된다.

밴쿠버 지역에서는 밴쿠버중앙장로교회(신다니엘 목사)와 밴쿠버베드로교회(송철웅 목사)가 주축이 돼 대회가 치러질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공: 캐나다계개혁신교대회)

(7면에서 계속) 기독교가 가르쳐온 힘에 복종하는 '노에 도덕성'은 유럽문화를 파멸시키는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신의 죽음'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는 더 이상 특정한 진리란 없으며, 오로지 특정 사회를 위한 상대적 진리만 존재한다고 거침없이 주장하였다. 그래서 니체는 포스트모던 해체주의자들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매우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객관적 진리를 부정하며 종교의 다원성을 주장하는 포스트모던의 아집도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종교다원주의를 통해 드러난 포스트모던의 모습은 어떠한가? 전통적 신앙과 개인의 신앙은 거침없이 해체시키고,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극단적 모습의 전통을 세우고 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이 공동체에 속한 모두가 현재는 '다른 길'로 가고 있으나 결국 '동일한 목적지'에 이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www.gospelmall.com 미주 최대 인터넷 샵핑몰. 5만 여권 이상의 도서 데이터베이스, 교회 모든 용품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서적 용품 기독교에 관한 모든것. 매주 2회 항공 직 수입. 신속하고 정확하게 배송. 현금처럼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포인트 제도. Site에 올려있지 않은 서적 주문도 가능. 구하기 힘든 서적도 최대한 구매 드림. E-mail : gospelmall@hotmail.com으로 출판사와 책제목을 보내주세요. 사용자 질문 있으실 경우 1.800.404.1171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할렐루야백화점 개역개정 성경과 새 찬송가로 바꾸시렵니까? 교회 단체 구입 시 한국 특가 제일합니다. 아직도 바꾸지 않으셨나요? 바이블 아울렛 (도매부) 성경전서 찬송가

HOT SALE 성경전서 찬송가. NKR73TH 22,000원 \$17. NKR73H 18,000원 \$12. 오.분.기.년.복.일.세.일.한.영.만.대. 대한기독교서회 성서원 미주총판

도서 신약서적, 일반서적, 선간도서, 베스트 셀러, 가정/결혼, 교양/문학, 교회교육, 교회음악, 디지털바이블, 목회와 신학, 성경/찬송가, 성서연구, 소프트웨어, 신앙생활, 신학일반, 실천신학, 어린이/청소년, 영적성장, 오디오북, 원서, 장서각인물, 전도/선교. 음악 세련ուն 음반, 베스트 셀러, 국내음반, 비디오편, DVD, 악보, 어린이, 학원음반, 찬송가, 연주 음반. 교회용품 목사 거운, 성기 거운, 크리스탈 강대상, 강대상, 교회용품, 선물용품, 서장/명사, 예비용품, 카드, 거의

카리스 종합주석 NEW /원어/배경/주석/강해/One Stop Reading. 카리스종합주석은 성경에 관한 모든 종류의 전집류가 상호 긴밀한 연관하여 세밀하게 통합 정리되어 있는 세계 최초의 저작입니다. 날권 \$30, 전권 구입시 \$25 each

멀티프로젝터 English Bible, Christian Book, 여름성경학교 수전, 컵, 쟁반, 펜등의 교회판촉물 전문업체. Product LIST: 2300 ANSI LUMENS 2000:1 \$1,095.00 \$699.99, 2600 ANSI LUMENS 2200:1 \$1,295.00 \$899.99, 3000 ANSI LUMENS 2000:1 \$1,795.00 \$1,199.99, 3300 ANSI LUMENS 600:1 \$3,195.00 \$2,399.99, 5200 ANSI LUMENS 1200:1 \$6,995.00 \$5,299.00.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미가엘 반주기 영상 성경 찬양 연주기 미가엘. 터치스크린 방식, 영상프로그램 쉽게 뒤움, 더 부드럽고, 아름다워진 연주. HIT상품 미주총판. 찬양연주기, 성경 DMB, 네비게이션, 영화, 음악 FM라디오, 음성녹음 가능

음악 세련ուն 음반, 베스트 셀러, 국내음반, 비디오편, DVD, 악보, 어린이, 학원음반, 찬송가, 연주 음반. 교회용품 목사 거운, 성기 거운, 크리스탈 강대상, 강대상, 교회용품, 선물용품, 서장/명사, 예비용품, 카드, 거의

HIS media 히스미디어에서 하는 일. 교회를 건축하시거나 중축하실 때 미리 연락주시면 경비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멀티프로젝터 샵프 밝기 2600 ANSI LUMENS 2200:1. 최저의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 DLP-XGA 특가 \$835.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목사님가운 성가대가운. 목사님, 박사, 졸업가운, 성가대, 연금위원, 드레스-경장양복

미중등부기샤 워터! 특별세일. 엘라크리수사 에라드수원장대상. LED LAMP를 설치한 LED 조명. 크리스탈 성구사. 최저가격 보장. 미주지역에 거주하시는 분께는 특별 할인 드립니다. 미주지역에 거주하시는 분께는 특별 할인 드립니다.

주문처 성경. 찬송가 등 기독교의 모든것 할렐루야백화점 HALLELUJAH BOOKS, Inc. 인터넷 샵핑몰 www.gospelmall.com. NY 131-01 39th Ave., Flushing, NY 11354 Tel.(718)762-0011/Fax.(718)762-8402 1-800-404-1171. NJ 205 Bergen Turnpike Little Ferry, NJ 07643 201-373-0030. LA 888, 888, 888 (213)447-4011. 성경, 찬송가 기독교서적 일반서적 영문기독교서적 강대상, 카운, 달력, 다이어리

한인15세 친구들의 회심이야기 (56)



연실적인 이슈 / 크리스천 리더십의 개발과 훈련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우리 15세 친구들의 회심을 돕는 유스 사역에 있어서 그 현실적인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회에 걸쳐 우리 15세 친구들이 이 사회에서 참된 크리스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이슈(Issue of Leadership Development Education)에 대해 이야기 하였습니다. 먼저는 우리 친구들에게 참된 크리스천 리더십을 교육하는 일이 얼마나 절박하게 중요한 일인가를 공감할 것을 촉구했으며 다음으로는 참된 크리스천 리더십이란 세상적인 그것과는 달리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는 것이며 참 지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라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사역의 형태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된 크리스천 리더십을 고취시키고 개발시키고 훈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참된 크리스천 리더십을 갖는다는 것은 참된 크리스천 리더들이 된다는 것이고 참된 크리스천 리더들이 된다는 것은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실제적인 장이 되거나 혹은 담임목사가 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에서나 어떠한 삶의 영역에서든지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정의로 세상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고 그래서 다른 이들 또한 그 본을 따르게 만드는 영향력 있는 사람(person of influence)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유스 그룹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깊이 있는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사용되기 위해

지한 자아성찰이 가능한 연령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신에 대해 정당화하거나 방어적이 되거나 혹은 과신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지요.

이 단계를 통해 우리 친구들이 그들의 삶 전 분야에 그리고 세상 각처에 걸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깊이 있게 깨닫고자 최선을 다하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계획하신바 자신들의 달란트와 역량과 잠재력을 깨닫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 친구들이 크리스천 리더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근간이 되는 "신앙"을 공고히 다져주는 단계입니다.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은 아마도 대부분 이미 최초의 회심을 경험하고 일생을 통한 회심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을 것입니다(최초의 회심에 대한 직접적인 기억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리고 이러한 친구들은 이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친구들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계를 통해서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친구들의 영적, 생활적 측면 모두를, 특히나 인격적 도덕적 측면이, 깊이 있게 그리고 아주 공고하게 기독교 신앙에 기초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많은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고 영향력을 가져야 하는 참된 크리스천 리더들을 교육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이들의 삶과 가치를 그리고 그들이 믿는 바를 지키 불 것이며 이들은 그 세상을 향해 참된 크리스천의 모습을 그 본모습을 보여주기로 되어있는 바로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천리더의 소명의식 심어주기 신앙 공고히 다지는 성경공부 및 성경적 롤 모델 제시

헌신된 그런 리더 말입니다. 우리 친구들을 이러한 참된 크리스천 리더들로 키워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참된 크리스천 리더십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교육해야 할 기본적인 5단계를 소그룹 교육에 적용하여 소개해 볼까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친구들에게 크리스천 리더들로서의 소명의식을 분명히 심어주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각의 분야에서 각각의 분량대로 리더로서 부르셨고 각각의 인생에 각각의 계획과 섭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각각의 친구들의 삶을 통해 이루시고자하는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자기 발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아마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진지하고 정직하게 본인의 강점과 장점, 그리고 약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인데 충분한 정서적 인지적 영역적 통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공간적 안정성 그리고 상호간의 신뢰가 보장된 소그룹 모임들을 적어도 2-3회 정도 갖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첫 단계를 함께 소화한 소그룹 멤버들이 마지막 단계까지 함께 도와가며 돌리면서 서로서로 리더들로 세워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또한 진

리한 사람들을 키워내는 교육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설사 아직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 해도 이 단계의 교육은 많은 도전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친구들에게 기독교적 윤리를 체득하고 내면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정의라는 윤리의 대전제가 소소한 일상에서도 온전히 성취되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말입니다. 이를 이루어가는 일은 사실 일생이 걸려도 완성되기 어렵겠으나 현실적인 교육의 측면에서 보면 약 4주 정도의 소그룹 훈련이 적당할 것입니다.

먼저는 깊이 있는 성경공부를 통해 기독교 윤리의 제반을 익히고 구체적인 상황적 세부지침들을 숙지하고 받아들이도록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롤 모델-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속의 많은 리더들-을 제시하는 일도 빠뜨려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수학공식을 외우듯 무조건적인 지식습득은 절대 지양해야하며 우리 친구들이 마음으로 납득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온몸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다음 회에는 나머지 세 단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브니엘장로교회)

일 메시아 왕권 (왕하9:1-13) 찬102장

구약의 이스라엘은 언약백성으로 신약교회와 공동기업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통치를 잘 보여주는 하나님나라의 모형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왕권의 변화를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 하나님은 친히 권위를 세우십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6). 위에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로 온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지혜

가 신자에게 있어야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나라를 중시해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은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신약에 오신 예수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원한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를 믿는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힘씀으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합니다.

화 아합의 죄 (왕하10:1-17) 찬337장

본문에 북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죄는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떠한가요? 첫째,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배은망덕이었습니다(2). 모든 외교에 능란했지만 왕의 본래 사명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길로 걸었을 때 자신은 물론, 관련된 그의 자녀들도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하고 나한 사람이 책임지고 회개하면 주님의 치료는 반드시 따

릅니다(요일1:7-9). 이것이 복음의 위력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습니다. 아합은 전사하고 그의 사돈 아하시야도 형제들과 함께 방랑길에 예후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10).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수 오시야의 실책 (왕하14:17-25) 찬456장

아사라가 16세에 왕이 돼 52년간 유다왕국을 다스렸으나(21) 그의 통치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첫째, 선지자의 가르침을 등한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스가라 선지자가 살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한 그가 교훈을 계속 따르지 못했습니다. 또 친척관계인 아사라 같은 위대한 종을 알면서도 말씀 생활화에 실패했습니다. 둘째, 일시적 교만이 문제였습니

다. 순간적 교만 때문에 화를 내며 분향하다 문둥이가 돼 살다 죽었습니다. 농경정책에 성공하고 정치적 기반을 다지고 신무기까지 개발해 국방을 든든히 했으나 자신의 번성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빈궁할 때나 번성할 때 잘 감당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자로서는 지혜는 능력주시는 그리스도를 중심할 때만 가능합니다(빌4:13).

목 구약의 선교 (왕하14:23-29) 찬268장

본문은 현대선교에 관해 무엇을 가르칩니까? 첫째, 니스웨 성의 대부흥을 일으킨 요나의 해외선교가 일어났습니다. 농경정책과 해외사역에 성공한 예로보암 2세는 경제적 부요했으나 생명의 주를 떠났습니다. 비록 악한 왕이 주도할 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친히 이루셨습니다. 요나 선지자의 생각이 유대주의가 팽배한 점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불성실한 시대의 증거를 보였지

만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니스웨의 부흥을 남기셨습니다. 둘째, 성령의 선교를 보여줍니다. 요나의 단 한번의 전파로 온 성이 송두리째 구원받는 일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더 많은 계시를 보으신 까닭은(25) 구원제시는 전 인류와 만물의 영원한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계시의 기록인 성경을 신뢰함으로 구원의 안전권에 들어갑니다.

금 예로보암의 죄 (왕하15:1-18) 찬404장

15절 말씀은 우리 시대에 무엇을 가르칩니까? 첫째, 모든 악의 평가기준이 됐습니다. 남 유다는 다윗의 경의 신앙이 분이었다면 북쪽은 예로보암의 죄가 기준이 됐습니다. 그의 죄는 단과 벨엘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움으로 이방 신들을 경배하는 죄의 기초를 놓은 것입니다. 그 시적이 반창해 그의 평생 벗어날 수 없는 이스라엘에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둘째, 죄의 전염성은 매우 강

합니다. 한 사람의 죄가 자기는 물론 남 유대에도 가증스러운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그 영향은 신약의 신자의 삶에도 계속 나타납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만을 전적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동시에 죄로 근심하는 우리 시대에 이 잘못된 자기의 죄를 살펴 겸손하게 살아야합니다.

토 블순중 (왕하18:1-16) 찬429장

12절 말씀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첫째, 멸망원인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언약파기가 멸망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이것이 교만으로 나타남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절대기준을 다른 곳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지 못하면 사람의 모습은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겸손한 자는 은혜를 받으나 교만한 자는 망합니다. 둘째, 블순중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 생명이요 구원이요 복입니다. 불신앙으로 치우친 결과는 하나님에 대한 배은망덕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대응물인 온갖 우상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구원을 받은 자는 이 귀한 순종을 배울 뿐 아니라 임마누엘하는 교회를 실재로 누립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야합니다.

교육칼럼

(5면에서 계속)

사실 저도 기독교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대체로 기독교교육을 받고 자란 신도들이 비교적 유부단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죄인가 아닌가,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남보다 뒤떨어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신앙도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머리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믿음의 결단을 나타내야합니다. 그런데 현대교육사조가 두잉(Doing)을 먼저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는

체면되지 않은 것은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억에도 남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직접 체험해야 믿어 오랫동안 잊지 않고 내 삶에 직접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학습의 주체는 교사가 아니라 바로 학생입니다. 교사는 학습안내자로서 방향을 제시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학습활동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어른들은 주일예배라고 하는데 왜 아이들 예배를 '주일학교'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

다. 아이들을 어른들처럼 앉혀 놓고 설교를 들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잠시만 견디지 못하고 몸을 움직이게 되니 사람이 말을 걸기도 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만일 아이가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으면 병든 것입니다. 아이들은 몸을 움직이면서 찬양하고 생각하고 몸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학습이 고안되어야 합니다. 교사는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동적인 학습을 통해 아이가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체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연락처: (714)699-0210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안내

<p>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재권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새벽기도: 오후 7:30</p>	<p>금관교회 담임목사: 김경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p>	<p>김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동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4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새벽기도: 오후 7:30</p>	<p>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7:30 새벽기도: 오후 5:30 주일 4부예배: 오후 8:00</p>	<p>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장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p>	<p>돈돈한교회 담임목사: 장항희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새벽기도: 오전 7:00 새벽기도: 오전 8:30</p>	<p>로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새벽기도: 오전 6:00(미)</p>
<p>명성교회 담임목사: 김광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새벽기도: 오후 4:30 (11월부)</p>	<p>맨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임건희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미)</p>	<p>삼보교회 담임목사: 박성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새벽기도: 오후 5:00</p>	<p>시어던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새벽기도: 오후 5:00 (문인들을 위한 한미어)</p>	<p>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p>	<p>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록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p>	<p>성일교회 담임목사: 김경곤 주일 1부예배: 오전 5:30 주일 2부예배: 오전 7:3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전 3:30 주일 6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미)</p>
<p>수영로교회 담임목사: 권병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p>	<p>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인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새벽기도: 오후 7:30</p>	<p>승평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새벽기도: 오후 7:00</p>	<p>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 오전 5:00(미)</p>	<p>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선용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p>	<p>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희 주일 1부예배: 오전 6:00 주일 2부예배: 오전 7:3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2:30</p>	<p>안양제일교회 담임목사: 조윤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2: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후 7:30</p>
<p>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새벽기도: 오전 5:30(미)</p>	<p>왕성교회 담임목사: 권자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p>	<p>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새벽기도: 오후 5:00 금요성경기도: 오후 9:30</p>	<p>주안교회 담임목사: 나경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주일 5부예배: 오후 4:00 주일 6부예배: 오후 7:00</p>	<p>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승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p>	<p>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태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 오후 7:00 금요성경: 저녁 8:00 새벽기도: 새벽 3:30</p>	<p>충신교회 담임목사: 박종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 주일 4부예배: 오전 2:30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주일 6부예배: 오후 7:30</p>

인/터/뷰 김승천 목사(파리 풍뇌프장로교회 담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찾아라!

“파리는 유럽 뿐 아니라 북아프리카 불어권 선교의 전진기지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선교대국으로서 한국의 미래선교에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될 지역이지요. 현재 파리 시내 한인교회가 15개 정도 되는데 이중 7개 교회가 새벽예배를 함께 드릴 정도로 연합이 잘되고 있습니다.”

파리(풍뇌프장로교회)에서 목회하는 김승천 목사가 집회 차 뉴욕을 방문했다. 1987년 말 여행차 파리를 방문한 김승천 목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목회의 길을 걷게 됐다. 프랑스에는 학생, 주재원, 대사관 직원 등 1만 5천명 정도가 거주하며 파리근교에 1만 명이 살고 있다. 그러나 교회 출석은 2천여 명. 한국인 숫자에 비해 저조한 이유는 드러나고 싶어 하지 않는 개인주의 때문이다. 그러나 한인교회들은 잡음 없이 잘 연합하고 있다.



김승천 목사와 막내 성아, 인선에 사모

건축을 추진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요즘 미국이나 혹은 해외에 있는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로 많이 유입되고 있다. 복음의 열정이 뜨겁고 목회적 관점이 분명한 많은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를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미주 한인교회들 중에는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교회도 있고, 역동적이고 새로운 교회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엘리아의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담겨 두신 것처럼 모든 목회자들이 퇴행하는 관점을 가진 것은 아니다. 늘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많은 목회자들이 세계 구석구석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 외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과 비전이 있다면?

토미 테니의 “하나님의 드림팀”이라는 책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듯이 하나님 되는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 공동체의 울타리를 허무는 사상의 작은 여우들을 잡아내고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더욱 공교하게 지켜야겠다.

많은 사람들이 안티 기독교인들을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목회적 비전은 프랑스와 유럽 목회 사역을 잘 성장시키는 것이다. 불어권 아프리카를 겨냥한 유럽선교정보센터(CIME)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 교회들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성교주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를 파리에서 걸러 줄 수 있는 브리지 역할을 하고 싶다.

파리는 2세 선교의 좋은 자원을 가졌다. 즉, 불어권 선교와 모슬렘 선교

를 기대하신다. 그러나 선교지는 할일 없는 사람들의 집결지가 아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준비 없이 선교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선교지에 서의 시행착오들을 무용담을 지나 영웅담처럼 이야기 할 때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한 준비에도 부족은 늘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어처구니없는 실책은 그만큼 선교를 더디게 한다.

계 하시는 사람들과의 관계 훈련을 잘 가지며 선교사를 꿈꾸면 좋겠다. 물론 모든 준비보다 우선하는 것은 늘 맑고 또 뜨거운 영성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에 불들려 있어야 한다.

-한국 교회나 미주 한인교회들과 목회자들에게 해주실 말씀은? 한국 교회나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파리, 북아프리카 불어권 선교의 전진기지

한인교회 연합, 선교·2세사역자 양성위해 매년 포럼개최

두 가지를 묶어서 할 수 있다. 현재 유럽에는 재 복음화가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2월에도 순복음교회를 빌려 유럽 재복음화 선교컨퍼런스를 가졌다. 다시 한번 유럽 복음화의 불길을 붙일 수 있는가가 최대 선교이슈였다. 현지 지도자를 초청해서 매달 선교 세미나도 개최한다. 프랑스 교단 신학교 관계자들도 한국교회에 관심이 많다. 또 한국인이면서 프랑스 교회를 목회하는 2세가 있고 1세 중에도 있다. 2세들을 잘 길러서 도전을 주기 위해 유러비전 포럼을 매년 한다. 내년 코담넛(선교동원가) 선교한국 전문가들이 파리에서 회의를 하는데 파리 젊은이들이 선교에 많이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다.

선교는 언어의 준비만 필요한 게 아니다. 문화도 알아야 하고 그들의 필요도 알아야 한다. 복음을 어떤 그곳에 담아서 전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번도 가보지 않고 그냥 선교지에 도착해서 부딪히기 보다는 몇 번에 걸친 답사와 문화의 적응 훈련을 갖고 전략적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좋겠다.

또 선교는 돈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하면 우선 선교사역보다는 후원자들의 모집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면 좋겠다. 오랜 시간 비전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받으며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 좋겠다.

선교사들 중에는 관계성이 약한 분들이 너무 많다. 훈련되지 않은 까닭이다.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가족이나 목회자들부터 비전의 동역자를 삼고 친척과 친구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

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가 충분한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만 외국에서 오랜 시간 사역하면서 한국 교회를 볼 때 너무 본질로부터 먼 것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

개인적으로 대형교회를 비판하는 입장은 아니다. 그러나 대형 건축물에 집착하는 것은 지금의 지향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형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대형 건축물이 필요한 게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 한국 교회는 대형 예배당 건축과 교회의 역동성을 바꾸고 있다. 유럽에 오래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럽의 많은 성당들과 교회들이 건물의 무게 때문에라도 변화를 꾀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종종 한다. 지금까지 방문한 한국의 많은 교회들 중에서 이 교회는 정말 건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교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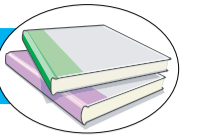
두려워한다. 그보다는 믿음 없는 성도들이 더 두려운 것이고 그 심각성을 모르는 교회가 더 두려운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그 시대나 상황이 악해라기보다는 그 속에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없기 때문이었다. 세상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는 없다. 하나님을 바로 구하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 망한다면 모르겠지만...

* 김승천 목사는 1987년 도봉했으며 유럽선교정보센터(CIME) 대표, KOSTE 유럽 후원이사장, 풍뇌프장로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으며, '파리 지성' 칼럼니스트이기도 하다. 저서로는 "원손 돕는 오른손", "뒤통을 막아라" 등이 있다. 부인 인선에 사모와 성지, 성시, 성아 1남2녀가 있다.

이메일: pontneuf_k@yahoo.co.kr

(유원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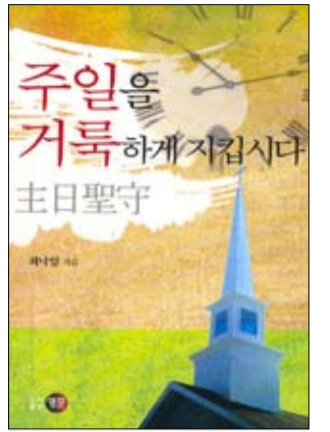
새책 소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시다”

지은이 최낙일 목사

현 복음문서선교회 회장이며 LA 동부장로교회 협동목사인 최낙일 목사가 최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시다”(도서출판 영문)를 출간했다.



50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5년 전 LA로 이주한 최 목사는 '주일성수'를 하지 않으며 교회가 점점 영적인 면에서 멀어져가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주일성수'의 중요성을 전하기 위해 본서를 출간했다.

총 170쪽으로 구성된 본서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시다', '주일성수에 관한 성경구절

50년 목회 간증 곁들여 주일성수 중요성 강조

과 해석', '주일 성수한 사례들'의 제하 아래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 구성돼 있으며 부록으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게재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시다'라는 제목의 첫 파트에는 주일성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피력했고, '주일성수에 관한 성경구절과 해석'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주일성수에 관한 구절들을 수록 설명했다. 또한 '주일 성수한 사례들'의 파트에는 김우석 준장(장모)의 주일 지킨 이야기, 만리동교회 김정순 집사 이야기, 경찰서장부인이 주일 지킨 이야기, 경남 거창 청년의 순교이야기, 서울대생의 주일성수 이야기, 건국 북조선 초대 대의원 선거 때 주일성수로 인한 핍박, 주일성수를 위해서 숙청 받고 옥에 갇혔던 백준걸 목사님 이야기 등 주변에서 보고 느낀 주일성수의 실례와 축복들을 열거했다.

저자는 머리말을 통해 “50여 년간 목회를 아쉽게 마감하고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몸소 듣고 체험한 것을 책에 담았다. 본서는 개혁주의 신앙과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썼으며 부록으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기록했다. 칼빈이 깨달은 독특한 교리인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간단히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썼다. 이 책을 보는 이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으면 좋겠다”고 저자의 출간 목적을 피력했다.

본서에는 정성구 박사, 신복운 목사, 최해일 목사, 오성환 목사의 격려사와 추천의 글도 수록되어 있다.

저자 연락처: (213)989-0654

(이성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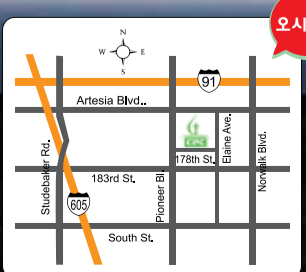
www.hym.cc



Here am i

제25회 남가주청년연합집회

Then I heard the voice of the Lord saying, "Whom shall I send? And who will go for us?" And I said, "Here am I. Send me!" [Isaiah 6:8]



일시: 2011년 9월 30일(금) 오후 7시 30분 • 10월 1일(토) 오후 7시
장소: 세리토스 장로교회 Faith Center Chapel (2층)
강사: 첫째날: 김원종 목사 (Harvest 교회 담임)
둘째날: Douglas Kim (HYM 대표)

HYM : T) 714.393.5135 (Douglas Kim 대표), 323.459.9832 (전정하 목사) / hym21c@hotmail.com
세리토스장로교회 : T) 562.860.5451 / 11841 E. 178th Street Artesia, CA 90701 / www.ilovecpc.org